朝鮮日報

購讀料 壹枚金四錢〇一個月八十錢〇郵稅從一個月拾五錢〇二個月先金郵稅並九十五錢〇六個月先金五圓四拾五錢〇壹個年先金十圓八十錢
廣告料 五號活字十五字詰一行金一圓廿錢 推報欄內金二圓〇四號活字十字半詰一行金一圓七十錢〇二號活字七字詰金二圓四十錢〇特別倍額
編輯兼發行人 金容熙
印刷人 兪邦
發行所 京城府水標町四三番地 朝鮮日報社
長距話 本局 二二五六番 振替口座京城四〇九九番

正明學校와 清州人士

正明學校의 死活運命은 即清州人士의 死活運命

地方來信을 據하건된 忠北清州郡有志의 盡力으로 該郡江內面多樂里에 普通程度인 正明學校를 私設하고 教授를 開始함이 業已有年인바 現今收容하는 學生이 一百八十餘名이라하니 吾人은 地方文運이 漸次로 昂上함을 祝賀하는 一面으로 該校에 對하야 心力과 財力을 供獻한 諸位兄弟에게 遙히 高風을 想望하고 拱謝不已하노라 爾來로 各地를 通하야 父兄된 人의 教育思想과 子弟된 人의 向學熱이 現著히 增進하야 蔚然成章의 觀이 教育界에 新現象을 呈露함은 誰이나 認知하는바이나 우리가 本來에 積蓄한 土臺가 無하며 環境에 周到한 保護가 游함을 因하야 아직ᄭ지 高等教育에 完全無缺한 設備가 有치 못함은 오히려 言치말고 國民의 普通常識을 涵養하는 普通教育의 現狀을 見할지라도 比年以來에 그 機關이 多少增加치 안임이 아니나 現在의 校數로는 一般의 要求를 到底히 充滿히 하지 못한 事勢이니 後進青年의 前列에 立하야 그를 引導誘掖할 責任을 擔負한 吾人이 萬一 教育問題를 將하야 宵邊處置만 依賴放任할진된 圓滿한 效果를 收치못할 것은 定한 理勢이라 外國의 教育情況을 考察하건된 教育行政을 施行함에 一個兒童이라도 學고져 하나 教授를 受할 場所가 無하다든지 또 所要하는 學科를 學習할 便宜가 無하다든지 그러한 不備의 點이 無하도록 設備가 整頓되얏건만은 民間側에서는 此로만 滿足하다 하지 안이하고 首府로부터 地方小都會ᄭ지 地方小都會로부터 窮僻한 村落ᄭ지 私設教育機關이 林々葱々하야 各程度와 各課程을 遺漏업시 設立教授하야 不知中에 衣食은 節約할지언정 子弟를 教育하지 안이하면 不可하며 人類가 되야서는 不學無識할진된 차라리 禽獸만 不如하다는 觀念이 各個人의 腦裡에 深印하야 篤厚善良한 風紀를 顚撲不破할만큼 造就하엿슴으로 그 文化가 如彼히 隆盛하거늘 우리의 境遇로는 何事가 不然하리요만은 더욱히 教育問題로 言하여도 우리의 誠心이 如何히 篤實하나 結局은 孤掌難鳴의 形勢이니 他人과 如한 功績은 期必치 못할지라 그럼으로 그 處地가 如此한 吾人은 맛당히 益々奮發하야 前途를 自謀함이 必要하도다

所以로 各地方人士의 醒悟가 漸緊함을 ᄯᆞ라서 日校日塾이 春前草木의 發榮하는 狀態로 爭先恐後하야 未唱하며 設立함을 耳聞하며 目擊하겟스나 그러도 過去現狀을 充分하다 하지 못할것은 事實이라 그러면 發憤忘食하는 勇氣와 誠心을 最大限度로 犧牲하여야 今後幾年後에 비로소 實效가 有할것은 煩論도 不俟할 바이어니와 우리는 우리의 教育前途를 爲하야 若此히 思量함으로 何地에서든지 何人이든지 學校一所를 設立하얏다는 消息을 接할 時에는 그 喜悅한 心事가 眉飛色舞함을 不覺하는 바이로라 清州는 비록 湖西의 所在地가 아니나 宏大한 都會가 안이요 正明校의 位置는 村落인 多樂里이니 此一校의 設立으로 因하야 우는 重大한 好影響을 余證에 洽與치 못하고 僅々히 東隣西里의 兒童 幾人을 教授함에 止할 而已요 他事가 無할듯하나 筆者의 衷心으로 歡迎하는 바는 文風이 都會에만 不止하고 村里ᄭ지 普及함을 더욱이 歡喜할 바이라 하노니 만일 都會에만 校舍가 林立하고 村落에는 無할진된 그 衣食住를 村落에 付托한 父兄의 子弟는 事實上 費用에 係와 形便拘碍로 因하야 望洋의 歎을 發할 外에 好辦法이 無할 터이던 하물며 現今의 都會에 鋪置된 機關이 十分 不足함이리요 我는 써하되 目今 朝鮮全道에 何鄕邑을 勿問하고 人民側의 自力으로 小學兒童의 公立普校에 除外된 者를 全數招集할 場所의 設備가 有할진된 各都會의 中學大學은 自然한 順序로 그 設立이 一層迅速하리라 하노니 時期와 程度를 더 遲延하라 하여도 그 趣旨의 所激에 抵抗치 못할 成勢가 有한 所以라 他地方은 始히 勿論하고 爲先 清州一地로 言할지라도 他面과 他里에서 더 正明學校를 觀感하고 奮發하야 그와 갓치 全郡各面에 普通教育이 完備하면 郡當局에서 그 學生의 要求하는 上級學課를 純全히 京城이나 他郡에 在한 高普를 惟一한 歸着處로 認定치 못할지니 假令 十分의 事業을 經營하는데 이 六七分은 自力으로 辦出하고 所餘部分을 人에게 資成하면 容易히 就緒될은 定理가 안인가 그러나 正明校의 內容을 聞하건된 創設된 時間이 不遠함으로 諸般準備에 草創한 者도 有하고 또는 若干의 資用에 그 不足한 額數를 個人의 私財로 稱貸함이 有하다 하나 該地人士의 熱誠으로 그만 問題를 解決함에 何難이 有하리요만은 此도 또한 等閑한 바는 안이라 할지라 願컨된 此事件을 早速히 區決하야 新立한 學校로 하여금 根基가 確立하게 하라 正明學校의 死活運命이 곳 清州人士의 死活運命이라 할지니라

南歐協約의 新形勢 (一)

十圍의 大鐵柱가 아모리 撑支力이 堅強할지라도 一次만 鎔解하면 無力하고 一枝의 小竹箭이 아모리 堪耐力이 纖弱할지라도 多數를 結束하면 有力할과 갓치 人의 力도 亦然하고 國의 力도 同然하야 散하면 弱하고 合하면 強한 것이라 그러함으로 個人의 自存上과 國家의 自立上에만 또한 伊然할뿐 안이라 多數人 곳 民族全體의 生存이나 各國家 곳 國際全般의 維持에도 皆然함은 東西古今을 通하야 歷々히 可數할이로다 東洋의 往事로 一言할지라도 中華所謂 春秋戰國이라는 時代에 各國君相이 盟壇插血에 精神을 汨沒하야 他邊에 엇시 幾百年을 經過함은 並히 閑擱하고 다만 洛陽城闕의 一個書生으로 合縱의 論을 藉하야 三寸의 短舌로 六國을 會合하야 洹水岸上에 縱約長이 되던 蘇秦의 當時政策과 當時聲勢로만 觀할지라도 橫暴하고 虎狼갓흔 秦나라가 函谷關을 閉하고 虎狼갓흔 秦나라가 函谷關을 閉을 速한다는 張儀가 敵히 口를 開치 못하기를 十五年을 經하얏나니 이는 關東六國(韓魏燕趙齊楚)이 各別하야 秦에 比較할진된 各自의 土地의 廣과 人民의 衆과 甲兵의 積과 資財의 蓄이 秦에 及하지 못할이 遠하다 할지라도 그 六國을 共同하야 結合하면 土地, 人民, 甲兵, 資財의 何者이던지 또는 思慮의 循環과 謀劃의 協同이 孤立獨存함과는 天壤의 異가 有하야 西方一隅에 僻在한 秦의 一國으로는 能히 制치 못하고 能抗치 못하는 所以가 안인가 그와 갓혼 政策과 그와 갓혼 聲勢로 六國互相間의 結合을 益々鞏固히 動作을 愈々一致하엿스면 張儀가 百이 有할지라도 奈何치 못하엿슬지어늘 六國君相이 賄賂를 貪하며 間言을 信하야 自相解體함으로 盤石과 一樣이던 縱約이 春雪갓치 消盡하고 優勢를 秦의 連橫에 歸하야 首를 俛하고 命을 聽하다가 究竟에는 質을 送하야 安을 求하며 地를 割하야 和를 請하니 大國의 地는 限이 有하고 秦의 求는 限이 無함으로 地가 盡하는 其日에 六國이 次第로 滅亡하엿나니 이것으로 論하면 秦이 大國을 討伐하야 滅亡케 함이 안이라 六國이 自離하야 滅亡을 自取함이라 할지라 그러면 各民族 各國家의 間에도 그 結合하고 結合하지 못하는 바에 禍福의 差가 甚遠하다 할것이 안인가 또는 近世紀에 至하야 百有餘年間 東西地球를 包羅하야 掀動하든 所謂 軍國主義 侵略政策의 各列強이 그 主義를 支持하고 그 政策을 伸張함이 何如한 力을 賴하엿다 할가 이는 一八一五年 維也納會議 結果로 所謂 神聖同盟이라 하는 一篇約章으로 歐西의 局面을 收拾하고 鎮定하다가 最近에 至하야는 獨墺伊의 三國同盟이라 英佛露의 三國協商이라 또는 遠近東을 董包한 日英同盟이라 하는 幾條約文의 力으로 互相牽制하고 互相輔翼하야 全世界에 大局을 按住하엿다 할지라

歐米各國의 社會運動 (七四)

佛蘭西

佛國社會主義는 前段에 述함과 갓치 分裂이 重疊하얏는데 日月이 去함을 ᄯᆞ라 多大한 不便도 感하고 또 內外의 모든 事情이 漸々合同의 期會를 催促함으로 一九〇〇年에 『게드』와 『라후알과유』 等이 嚴正하게 『라스』主義를 標榜하고 佛國勞働黨을 創立하자 『에드왈•우아이얀』을 首腦로 삼은 『부란기』派는 先히 此를 合同하고 更히 모든 分派를 合同하야 佛國社會黨을 組織하얏되 『일만, 지요레스』 等 一派도 또한 同名으로 稱하야 此를 對立하얏는데 一九〇四年의 『아무스데르다무』 萬國社會黨大會는 『一國一黨』의 決議를 行하고 佛國社會主義者中에도 또한 合同의 利益을 思하는 者가 漸々多함으로 此兩派로부터 委員을 選出하야 商議를 開한 結果 一九〇五年에 遂히 『게드』派 『알네르만』派의 革命黨과 『지요레스』派의 調和統一과의 大結合을 作하얏섯다

者는 佛國社會主義史中에 그 勞働運動에 關한 簡單한 記事를 加하고자 하노라 佛國의 勞働組合運動은 그의 大體가 政治運動과 同一한 步調를 取하야 왓나니 已往한 『길드』制度는 一七九一年에 顚覆되야 勞働者의 團結은 此에 禁止되고 말앗는데 『나파룬』 一世는 雇主와 雇人사를 強制的으로 團結식혀서 此를 雇主의 支配下로 歸하고자 企圖하얏스나 大端히 成功을 得하지 못하얏다 그러하나 勞働者의 團結은 漸々發達되야 一八六四年에 彼等이 幾分의 團結自由를 得하얏다가 一八八四年에 至하야서는 全혀 그 自由를 獲得하얏섯다 同一한 團體로 結台하고자 하는 計畫은 長久히 繼續하지 못하고 勞働組合의 性質은 漸々強固한 急進的 步調로 發達하야 機械勞働者와 鑛業勞働者의 『스트라이기』가 頗히 多하얏다 一八九〇年에 鑛夫의 總同盟罷工이 有하자 一八九二年에 『갈만』에서 起한 鑛夫 『스트라이기』는 그의 凄慘한 事와 그의 社會主義主張으로써 더욱 有名하얏섯다

一八八八年으로부터 一八九一年에 至하기ᄭ지 그 中間에 佛國에서 起한 『스트라이기』數는 實로 千〇三十四件의 多數를 致하얏는데 其中에 成功한 것이 二百六十九件이요 讓步한 것이 二百十七件이엿다 東火가 絕滅하얏스나 西火가 更起하고 一波가 稍定하얏스나 二波가 又動하야 勞働運動이 漸々膨脹함의 佛國政府는 此에 對하야 無限한 腦力을 費하얏다

朝鮮古今人物 (三七)

崔瑩 (五)

時에 倭賊이 連山開泰寺를 屠하야 元帥 朴仁柱가 敗死하니 瑩이 聞하고 出擊하기를 自請한듸 禑가 瑩이 老衰함으로써 止하거날 瑩이 曰 蕞爾한 倭寇가 今에 橫暴를 肆하기 此와 如하니 今에 制하지 안이하면 後에 반다시 圖하기 難하리니 만일 他將을 遣하면 반다시 制勝할지도 知하지 못하고 또 兵事에 素練한 者가 無한지라 臣이 비록 身은 老衰하얏스나 志인즉 衰하지 안이하야 다만 宗社를 便安히 하고 王室를 護衛하고자 하노니 願하건된 急히 麾下를 率하고 往擊하겟나이다 하야 請하기를 再三에 至하니 禑가 許諾하거날 瑩이 宿하지 안이하고 即時에 行하다 時에 賊이 老弱으로 하야금 舟를 乘하게 하야 將次 還하고자 하는 모양을 表하고 가만히 勇銳한 兵士 數百人을 遣하야 깁히 入寇함에 所過하는 곳마다 風을 望하고 敗靡하야 敢히 當하는 者가 업는지라 鴻山에 이르러 殺掠을 大肆하야 그의 形勢가 甚히 盛하니 瑩이 楊廣道都巡問使 公哲로 더부러 戰을 助하고 元帥 康永과 兵馬使 朴壽年 等으로 하야금 鴻山에 進하야 將次 戰할시 瑩이 먼저 險隘한 곳을 據하니 그 面이 모다 絕壁이요 오즉 一路가 可히 通할만한지라 諸將이 畏怯하야 進하지 안이하거날 瑩이 親히 先向함의 士卒이 於是에 精銳를 盡하야 突進하니 賊이 披靡하더니 一賊이 林薄中에 身을 隱하얏다가 瑩을 射하야 矢가 唇에 中함의 鮮血이 淋漓하되 神色이 自若하고 遂히 反射하니 賊이 弦을 應하야 倒하거날 瑩이 乃히 矢를 拔하고 奮力突進하야 賊을 大破하다 禑가 大喜하야 承吉에게 白金五十兩을 賜하고 三司右使 石文成을 遣하야 瑩에게 衣酒鞍馬로 賞賜하고 또 醫人 魚伯評을 보내여 藥을 賚하고 瑩의 箭創을 治하게 하더라 瑩이 凱還할시 禑가 宰樞를 命하야 郊迎하게 하고 맛人見함의 禑가 酒를 賜하고 問曰 賊衆이 幾何오 한듸 對曰 能히 其數를 的知하지는 못하나 그러하나 不多하더이다 하고 諸相이 또 問하거날 曰 賊이 만일 多하얏더면 此老가 거위 生하지 못할번 하얏다 하더라 功을 論하야 侍中을 拜하니 瑩이 固辭하야 曰 侍中이 되면 可히 外方에 經出하지 못할지니 倭寇를 平한 後에 可할지니다 하니 乃히 鐵原府院君을 封하다 倭가 夜에 猝然入寇하야 戰艦 五十餘艘를 焚하고 千餘人을 殺死하니 萬戶 孫光裕가 流矢를 中하고 僅히 得免하다 初에 瑩이 嘗히 光裕를 戒하야 曰 猝梁江口에셔 兵을 耀하고 海에 出하지 말라 하얏더니 是日에 光裕가 總히 猝梁에 出하야 大醉熟眠할시 賊이 突然히 至하야 遂히 見敗하얏더라

朝鮮佛教革新論 (十五)

梵魚 李英宰

그럼으로 佛教가 諸神繪像을 奉安하야 他教에서 偶像崇拜라는 誹謗을 甘受하야 가면서 이것을 供養할 必要는 秋毫도 업다 佛像神繪가 비록 吾人의 信仰心理로 된 象徵이라고 하나 何必 形相으로 할것도 안이요 또 多種多樣의 象徵으로 할 必要도 업다 一種으로도 吾人의 表象的 要求는 滿足케 할수 잇다

그럼으로 佛敎에 現存 佛像神繪를 一切撤廢하여야 可하다 그러나 佛像 그것의 裏面에는 猛烈한 信仰의 表象이 잇고 또 數千年間 歷史的 因襲이 잇슴으로 全廢는 不可能한 것이다 그러나 多種의 象徵을 羅列하야 信仰의 眞髓를 忘케 하고 信仰의 對象을 迷케 할 必要는 絕對로 업다 그럼으로 各寺本堂에 釋迦牟尼佛의 尊像 一位만 奉安하고 其餘 佛菩薩像 神像 等은 一切撤廢하야 一寺에 一位佛像만 奉安케 할것이다 現在 佛像神繪中에는 信仰上으로보다 藝術上으로 重大한 價値가 잇는것이 만은즉 이것을 잘 鑑別하야 保存의 價値가 잇는것은 全部 別殿에 收合하야 貴重品으로 保管할것이요 決코 崇拜供儀치 말것이다

各敎會에도 特別히 地方信徒의 心理傾向에 依하야 不可不 佛像을 奉安할 必要가 잇는 個所에만 限하야 釋迦牟尼像 一位만 奉安하되 佛壇을 設치치 안이하게 할것이요 特別한 事情이 업는 個所에는 全部 佛像을 奉安치 말것이다

宗學의 統一、 本尊을 統一하야 歸依對像을 確定하는 同時에 敎의 內容方面인 宗學을 組織하야 所依經典을 確定함은 一致統一上 必要한 것이다 佛敎經典의 多數多門함은 各敎를 通하야 首位에 參與할 것이다 싸라서 經典中에는 時間과 場所에 局한 것도 또한 적지 안이하다 또 佛說이 作失眞된 것도 不少하다 또 中間에 僞라 하야 尊重이 여기고 非佛說이라 하야 卑賤케 여길것도 안이다 不幸히 吾人이 아즉 佛敎各經典을 涉獵하야 다하지 못하얏슴으로 斷言키 어려우나 如何間 佛敎所依經典은 佛敎思想의 絕頂인 大乘經典으로 定함이 可하다고 성각한다

歷史上으로 본 世界 (十五)

惺吾 李利[illegible]

이것도 反動으로서는 不得已한 것인지도 모르지마는 그러나 世界支配의 邪道에 陷한 者임은 無違하다 但 이는 強者의 覇業的 世界支配가 假令 그것은 世界獨占이 안이라고 하더라도 現代에 行하려고 하는 서에 在하야 一面에 過激으로도 하자라는 思想的 世界支配의 潮流가 漲膨하는 것은 文化史上에 決코 意義업는 것은 안이다 要컨된 吾人은 世界支配에 兩樣의 區別이 잇는 것을 是認하고 兩者의 性質을 充分히 了解한 後 此兩大潮流의 間에 立하야 自國民의 進路를 如何히 定할가 하는 것이 急務다

本問題는 이것으로써 쯧나고 이다음에는 『世界的思想』의 篇末에 附錄으로 두엇든 『現代民族運動』이란 것을 다시 繼續하야 써 압서 오든 글과 서로 氣脈을 通하게 하려 하나이다‖譯者로부터‖

(一)民族運動의 由來

歷史를 보면 비록 如何한 時代일지라도 征服者와 被征服者와의 關係가 是認되지 안는 時代는 업다 그것은 優와 劣의 맛흠이며 大와 小의 對抗이다 그리고 征服者는 如何하든지 自己의 優越을 維持하기 爲하야 被征服者에게 對하야 壓制的 手段을 取하는 境遇가 적지 안타 階級制度라는 것은 即 그러한 手段인데 希臘의 首府에 在한 『스파ー르타』의 階級制度도 또는 征服者인 『스파ー르타』人을 『스파ー르차에』이라는 特別階級으로써 取扱하야써 『스파ー르타』人의 優越을 保全함에 힘썻다 또 古代印度에 在한 階級制度갓흔 것도 그 一例인데 波羅門이 最上階級으로서 幾多의 特權을 享有한 것도 亦是 征服者의 優越을 永久히 保全하려는 手段이엇섯다 此에 對하야 被征服者가 자조 反抗을 企圖하야 或時에는 叛亂을 圖謀하는 것이다 如斯히 征服者對 被征服者의 關係는 恒常 歷史에 나타나는 바 古今東西에 共通한 事實이다 最近에 至하야는 그 關係가 자조 民族運動이란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이 民族運動이란 것은 여러가지 原因이 잇겟지마는 그 가장 現著한 原因은 歐羅巴國民의 精神的 自覺의 結果라고 할수 잇다 即 被征服者인 劣勢民族이 自己의 民族性 乃至 民族力을 自覺한 結果라고 하겟다 要컨된 民族運動은 民族自覺의 結果인 것임으로 그 運動이 民族的 自覺이 強치 못한 亞細亞 또는 其他의 大陸에 發源하지 안이하고 주장 歐羅巴大陸에 起하엿다고 하는 것은 유롭(歐羅巴)國民의 自覺이 最強한 點으로 보아서 秋毫도 怪異할것 업다 元來 亞細亞 其他에서도 民族運動이 일는 것은 안이나 그러나 그 가장 現著한 것은 歐羅巴가 안일수 업다 또 換言하면 유롭에서 生한 强動이라고 하여도 可하다 即 競爭心이 强하며 徹底的이고 또 自覺的인 歐羅巴文明의 産物이다

(二)民族運動의 性質

民族運動이란 것은 문저 十九世紀中엽부터 發生한 것이라고 하야도 可하다 그 運動은 十九世紀史上의 諸運動이 그러함과 갓치 어느 것이든지 自由와 平等을 要求하는 時弊이엿다 이 點에서 佛國革命以來의 自由精神에 負한 바가 만타 即 政治上 社會上 보다 더 만은 自由를 欲求하야 될수 잇는 서ᄭ지 自由와 平等의 地位에서 더 고하는 것이 民族運動의 根本精神이다 그러나 이 運動은 다른 事實과는 달나서 單히 政治運動이며 社會運動만이 안이고 그 또 一面에서는 歷史的 또 感情的 原因에 負하는 바가 不少하다 民族運動은 純粹한 政治的 運動이 안이고 歷史的 事情에 基因하는 點이 만다고 하는 一例로서는 猶太人이 가장 適當하겟다 猶太人은 이미 千數百年以前에 滅亡한 國民이다 前도 國家는 업지마는 二千年來 世界의 歷史上에는 社會的 方面에서 重要한 位置를 占領하엿다 世界의 經濟이 彼等의 手中에 잡히기는 今昔이 한가지다 國家는 업지마는 民族으로서는 彼等은 重要한 者이다 斯히 彼等 猶太人 사이에는 民族으로서의 觀念은 決코 泯滅치 안이하엿다

헬만과 도로데아 (六四)

梁[illegible]葉 譯

이것은 물어볼데 입습니다그려 누구에게 물어보든지 당신의 心理를 알아보기는 어렵을 것이겟지요? 아ㅣ 이것은 알아볼데가 업는 貌樣: 이와갓치 도로데아가 헤르만에게 말을 하게 되니 이날은 점으려가게만 되엿다 이는 발서 밤이 되야 다앗가ᄭ지 빗최여주든 夕陽의 놉흔 마쓰막 가고 말앗다 이와갓치 西쪽 한울노는 놉히 마조막지는 때 東쪽 한울노부터는 보름의 둥근 달이 솟는 빗초로써 불거우리하게 우스며 솟나온다 이 둥근 달은 오직 半空中에 놉히 소사 저의 빗최임을 자랑하며 또한 이 헤르만과 도로데아 두 情人의 압길을 밝게 빗최여주엇다 아ㅣ 이제는 灰色의 뫼입을 찬아주함이 되얏다 헤르만과 도로데아의 서々엿는 압흐로는 마을집에서 반짝반짝 빗최여주는 燈불이엿는데 헤르만과 도로데아의 선 바로 뒤에는 두 사람은 그림자가 얼넌거리인다 헤르만 自體로는 어밤과 갓치나 새 記憶의 印像을 준서가 업섯슬터이여 사랑이 엉키인 자리는 엄써슬 것이로다 이러구러 발근 달의 빗최는 것을 바다 헤르만이 도로데아를 思慕하며 憧憬하든 비나무 아러서 지임으게 되얏다 이 비나무 아러에서 헤르만은 혼자 이 世上의 엇지할수 업는 運命이란 사슬에 억미여 이리저리로 돌아단이게 되든 도로데아의 魔地를 生覺하며 만은 눈물도 자웟섯고 그의 苦生하는 바를 生覺하고 造物主에 對한 만은 怨妄도 하얏섯다 아ㅣ 헤르만에게 對하야 언제이나 닛지 못할 이ㅣ 비나무ㅣ오 직 이 世上의 모ㅣ든 것을 하소연하든 이ㅣ 비나무ㅣ에 비나무는 헤르만에게 업지 못한 비나무가 된것 갓치 도로데아에게도 닛치지 못할 비나무ㅣ 더욱이나 도로데아의 꾸몸을 갓치 하고 잇는 헤르만에게는 다시 어ㅣ 비나무가 치여다보게 되얏고 한번 다시 生覺을 일으키게 하여주엇다 이 비나무 아리에 일은 헤르만과 도로테아는 둥근 보름달을 가리인 나무닙사귀 아릭로 털벅안게가 되얏다 이ᄯᅢ에 헤르만은 맛가 도로데아가 웃든 말이 선득 生覺이 나게 되야 한便으로는 도로데아의 몸은 것을 無上의 기뿜으로 알앗고 또 한便으로는 다시 도로데아와 니야기하는 것이 無上의 질거움으로 알앗다 털벅안자 無心하게 달을 치여다보는 도로데아에게 헤르만은 갓가이 안자서 도로데아의 힘업시 노은 손을 붓잡고 도로데아를 되려다보면서 말을 한다 『자ㅣ 도로데아씨? 나에게 맛가 물어보신 것이 잇지요 네? 그에 對하야는 나에게 물어보실 것이 안이라 오직 당신의 가삼속 마암에다가 물어보십시요! 그리고는 엇지하든지 괘ㄴ치 안으닛가 그것은 또 生覺하세서 당신의 마암터로 이 나에게 하여주십시요그려ㅣ 그런것ᄭ지 나에게 물어보실 것은 안이올시다』 이와갓치 헤르만의 입으로부터는 도로데아에게 對하야 말이 나오긴 하얏스나 헤르만의 마암속으로는 ᄊ우는 生覺이 잇섯든 것이다 이와갓치나 두 情人의 서로서로 사랑에 엉기이여 말할 조흔 機會가 잇섯스나 저의 生覺하는 바와 갓치 다ㅣ히 ㅅ치여 놋코 말할수 입는 한갓 事情이 잇슨 것이다 헤르만이 生覺한 바와 갓치 만일에 안일지면 이는 도로데아에게 對한 未安생 안이라 헤르만 自身에 對하야서도 未安할것 생이기 ᄯᅢ문에 오직 도로데아의 손에 ᄭ위잇는 바 (싸이야몬드)의 번적이리는 記念의 『으링』을 留心이 되려다볼 뿐이얏다。 아ㅣ 이 도로데아의 內心을 이직ᄭ지도 理解치 못하야 속어리우는 헤르만은 오죽이나 안타ᄭ워 하얏스랴ㅣ 이 두 사람은 서로 아모말이 업시 우둑허니 리빗최이는 달빗만 치여다보고 안잣다 그러나 이 두 사람에 안잣는 그 瞬間이나마 서로서로 사랑의 엉긴 줄은 남모르게 왓다갓다 하얏술터이다 얼마둘 아모말업시 안잣든 도로데아는 헤르만에게 對하야 다시 말를 써널나 한다

本館의 目的은 待客親切
本館의 設備는 枕具一新

校洞旅館

左記處所에 旅館을 新設하고 時代가 要求하는 設備下에서 開館하얏사오니 一次光臨을 切望
京城府業園洞二一三番地(세고다公園東門前)
主 趙重植

綿糸 綿布 綢緞 洋屬
貿易商 (元) **元東商會**
仁川府新町四拾六番地
主 閔明植
主任 林鐘元
同 李東植

開業自祝大賣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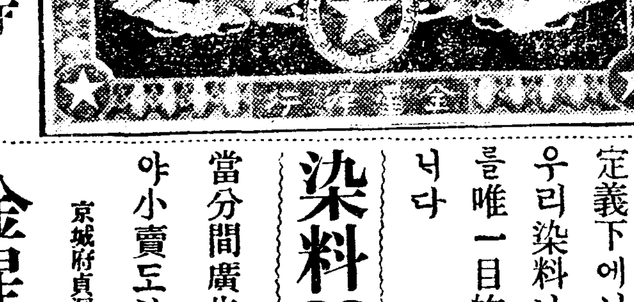
	甲	乙
一號品 一打	一七、〇〇	一五、五〇
二號品 一打	一三、二〇	一二、〇〇
三號品 一打	一〇、二〇	九、〇〇
四號品 一打	八、入〇	七、三〇
五號品 一打	七、〇〇	一、八〇
六號品 一打	五、五〇	四、〇〇

京城府鍾路二丁目四十二番地
廣盛製帽所

洋服會社員 八回 募集

本社는 五十圓金出資하는 社員의게 己妻子中 一人式 各種洋服을 無料로 實習教授하고 社員權을 享有케 하며 決算期마다 利益을 配當함
‖科目‖ 各種洋服裁縫及裁斷法(짓고마루논법)
一、募集人은 男五十人 女二十人▲出願日 十二月十四日ᄭ지
一、社員이 안인 實習生은 入學金三十圓先納하고 月謝金五圓式
一、開學은 同十五日▲卒業後 技能에 依하야 採用又는 紹介함
一、卒業期는 四個月 但 詳細事는 三錢切手를 同封하여 問하시요 本社는 京鄉各處에 洋服店을 多數히 設하고 營業을 實地進行함
京城府弼雲洞八八 鮮興同業社 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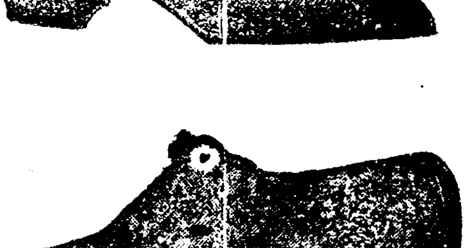
頂上 **頭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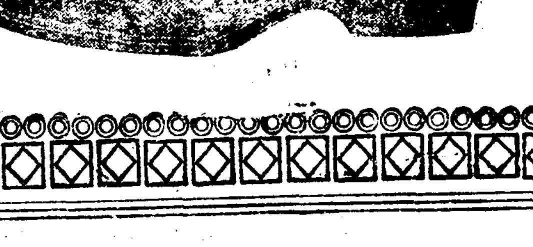


不正商人은 自然敗滅하리라
定義下에서 製造하난 우리 染料난 薄利多賣를 唯一目的으로 하옵니다
染料(물감)
當分間 廣告하기 爲하야 小賣도 하옵니다
京城府貞洞一番地의一
金星洋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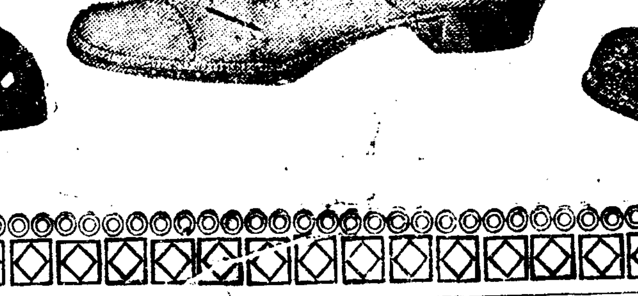
齒科診療
東京齒科醫學士
李熙昌齒科醫院
京城黃金町一町目二九番地
(京城日報社越便)武橋
大正十一年十月十七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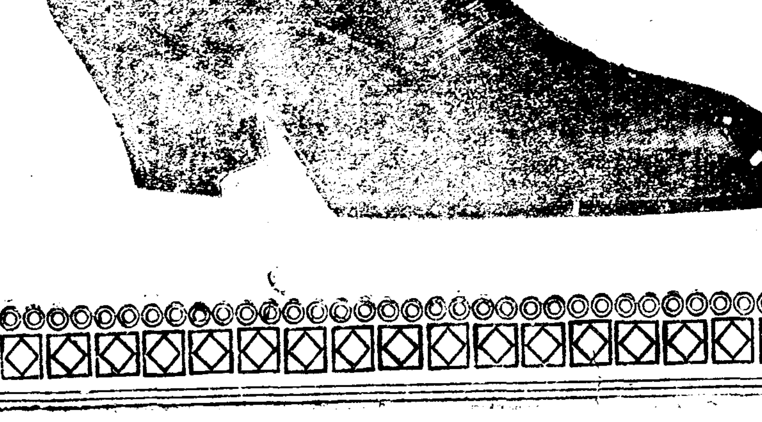
本店에서 多年間 洋靴界에 從事하던바 今番 業務를 一層擴張하옵고 歲暮를 當하와 東西洋豊富한 原料를 多大輸入하야 迅速한 酬應과 美麗한 品質로 以前賣行價格보다 特別大割引하겟사오니 內外國僉位는 一次試顧하심을 敬要
……十聞이 不如一見……





〔定價表〕
特上品 黑복수短靴 自十一圓으로 至十二圓ᄭ지
同 黑복수編上靴 自十二圓五十錢으로 至十四圓ᄭ지
同 西洋紫복수短靴 自十二圓五十錢으로 至十四圓ᄭ지
同 西洋紫복수編上靴 自十四圓五十錢으로 至十六圓ᄭ지
同 黑깃도短靴 自十四圓으로 至十五圓ᄭ지
同 黑깃도編上靴 自十五圓五十錢으로 至十八圓ᄭ지
同 紫깃도短靴 自十四圓으로 至十五圓ᄭ지
同 紫깃도編上靴 自十五圓五十錢으로 至十八圓ᄭ지
但 學生복수短靴 八圓均一
同 學生복수靴短靴 十人以上團體注文에난 割引홈





迅速酬應은 本店에 生命
物品特選은 本店에 特色
京城府水標町四三番地
各種洋靴 原料附屬品 直輸入 製造販賣
天一洋靴店
…(引換代金大歡迎)…

中國政局

張紹曾總理決定

(北京五日發電) 黎總統은正式總理로張紹曾氏를任命하고國會에提出하야同意를要求하기로決하얏는데顧維鈞氏는關稅特別會議準備處長으로任命되얏다더라

張總理案同意乎

(北京六日發電) 王大燮內閣은來十日山東交涉調印의責任을履行하얏다는名義로써總辭職하기로決하얏슴으로八日衆議院은大總統의提出한國務總理張紹曾同意案을上程할터인데該案의通過는確實하고黎總統은張紹曾氏를正式으로任命한다더라

張內閣員預想

(北京六日發電) 張氏內閣은左와如히閣員을組織한다더라

總理兼陸軍 張紹曾 內務 高凌霨 外務 王正廷 財政 張英緒(或은劉夢甲) 海軍 李鼎新 交通 張志潭(或은吳毓麟) 農商 李根源 司法 諸輔成 敎育 馬鱗翼

以上은吳景濂氏가保政派에諒解를請하는中이며九日曹錕氏의誕生祝兼保定大會議에서決할지며今에는張氏內閣도成否가不明하다더라

山東鐵道受渡委員任命

(東京電) 山東鐵道評價額決定과共히去五日中國側에서는閣議를開하고王正廷盧之常兩氏를山東鐵道受領委員으로任命하얏는데日本側에서는아즉確定치아니하나森總領事秋山行政引渡委員長이任命될터이오又大村鐵道技師以下各委員도各々委員으로任命한다더라

段祺瑞總統推戴計畫

(北京六日發電) 最近에組織된新國民黨에는其麾下에曹錕氏의部下가大多數를占한바段祺瑞氏를大總統으로推薦하고曹錕氏를副總統으로하라고運動하며段氏는政治에關係치아니한다고言하나出盧의野心은아직々지無치아니하다더라

河內土匪調査委員派送

(漢口五日發電) 河南土匪調査及應急手段實行員으로漢口領事團에서英國商業會議所長『멧카』氏가實業者二名宣敎師四名을指名派遣하게된故로同委員이七日出發河南鄭州에赴하야北京外交團에서派遣한委員과同地에會合할터이라더라

天津講和會議

(北京五日發電) 吳佩孚氏排斥의意味로末久曹錕側代表가天津에會同하야講和會議를開할貌樣이며該會議는主로曹錕派의計畫한바가有한데此一面에는曹錕等의所謂天津派가吳佩孚氏排斥의意味를含한計畫을行한者이라此際吳佩孚氏의意見에不顧하고會議를進捗케할計畫인貌樣이라더라

山東協定公表

(東京電) 日本外務省公表에依한즉十二月五日午後六時北京에서山東鐵道에關한細目協定의調印이終了하얏는데其價格은四千萬圓利率은年六分鈔道의引渡는大正十二年一月一日正午로하고一個月에完了하기로決定한故로山東細目協定은全部解決하얏다더라

天津會議預備

(北京五日發電) 奉直會議가進行하야張作霖氏의代表張學良氏가四日天津에來着하야五日調停者鮑貴卿將軍과會見하고會議에關한協議中이라더라

日人視察團到奉

(奉天發電) 桑港新世界社主催加州日本人視察團四十餘名은來奉하야六日省長王永江氏를訪問하얏는데華府會議後米國의排日이益々猛烈한故로滿州를移住地로適當하다고認한結果實地視察한所以인데實行上誤解를避하기爲하야爲先于省長의諒解를得하라고訪問하야事情을陳述하얏다더라

保定會議

(北京六日發電) 九日保定大會議에는、馮國璋、蕭耀南、劉傳芳、曹銳兄弟、王承斌等의曹錕派巨頭及關係各派의代表가參加할터이나吳佩孚氏는獨히洛陽本陣에在하고參席치아니한다더라

歐米情報

英佛政府意見不合 獨逸賠償問題에對하야

(巴里六日發電) 獨逸賠償問題에關하야英佛兩國政府의意見이相違한데英首相『보나로』氏는英國의負債輕減、國際間의債務가解決되면獨逸의財政을監督할事에反對치아니한다더라

愛蘭自由國議會開會

(사부링四日發電) 愛蘭自由國議會는正式으로自由國을創設하기爲하야六日開會한다더라

英上院愛蘭自由國法案通過

(倫敦四日發電) 英國上院은愛蘭自由國에關한法案若干을通過하얏다더라

英兩院、愛蘭憲法通過

(倫敦五日發電) 英國上院은愛蘭自由國憲法에効力을與한法案을通過하얏는데同法案은旣히通過하얏다더라

愛蘭憲法裁可

(倫敦電) 愛蘭憲法은英國議會를通過하야裁可되얏더라

愛蘭兩軍戰鬪開始

(사부링五日發電) 共和軍은不規則戰을再開하고六十名이『올크』市街를襲擊하얏는데自由國兵으로因하야擊退되고自由國兵은機關銃을使用하야共和軍을追擊한結果上林中에入하야死傷者若干名을出하얏다더라

英首相露獨密約說否認

(倫敦六日發電) 英國首相은下院에서英國外務省이露獨密約에關한報에接한事를否認하얏다더라

西班牙新內閣組織

(馬德里六日發電) 『아루루세마스』公爵은新內閣組織의命을被하얏다더라

米海相戰艦維持斷言

(倫敦六日發電) 米國海軍卿『덴비ー』氏는其年次報告에米國은政策을維持하고商業을保障하야海外에在한米國의利益을保護하기爲하야充分한戰鬪艦隊를維持치아니치못하겟다고斷言하고海軍制限은他締盟國의批准에終了하기々지는實行키不能하다더라

米、希臘避難民上陸拒絕

(倫敦六日發電) 米國國務省은移民法의改正은不能하다는理由下에希臘避難民의上陸을許可함은不能하다고發表하얏다더라

希臘『안』親王終身流配

(雅典五日發電) 『안도리우스』親王은小亞細亞에서敗戰한故로終身流罪에處하야皇族의禮遇를停止하게되얏고希臘前閣員을處刑하기爲하야『쏘뎨쓰』에서軍隊가謀叛하야『마이싸』將軍은辭職하얏다더라

希臘『안』親王倫敦發向

(倫敦六日發電) 小亞細亞戰爭의責任者로放逐된『안도리우ー』親王은同妃와共히倫敦으로向하야雅典을發하얏다더라

佛社會黨員前首相批難

(市俄古五日發電) 佛國社會黨員『야ㄴ론에ー』氏는歐州에將來戰爭의原因을釀成한者는鐵腕的要求를提唱하는『크레만소ー』氏의徒黨이라고斷言하얏는데『론에ー』氏는『세ㄴ도루이스』에서演說할豫定이더라

佛前首相、米國大統領會見

(華府五日發電) 佛國前首相『크레만소ー』氏는米國大統『하ー듸ㅇ』氏와四十五分間을會見하얏는데『크』氏는會見의時에滿足한貌樣이며尙且同氏는前大統領『위ㄹ손』氏와六日에會見할터이라더라

軍隊輸送

(哈爾賓六日發電) 知多로부터歸來한人의談에依한즉東軍에極東輸送이陸續實行되야莫斯科에서特別軍事技師等이知多를通過하야沿盟에向하고出發하얏는데此等은浦鹽要塞의防備充實에充할터이오『하바로후스크』에서도防備를嚴重히하야河川巡視官은武裝하얏다더라

露軍減縮意向

(巴里六日發電) 露國及接壤各國의軍備制限會議에서露國은陸軍을二十萬으로減少할意가有하다고斷言하얏다더라

近東會議彙報

英希土意見不合

(巴里五日發電) 『로싸ㄴ누』會議에서英外相『가쏘ㄴ』卿과土耳其首席委員『이스밋또파샤』氏의意見이顯著히衝突하고又『가쏘ㄴ』卿과希臘代表『에니제로스』氏間의關係는明白히不和하게되얏스며又露國에『지々에링』氏는國際聯盟은絕對的聯合國의勢力下에在한故로此干涉을拒絕하얏다더라

土國海峽通航審議延期

(로ㅅ싸ㄴ누四日發電) 土耳其海峽通航船에關한審議는延期되얏다더라

希臘前首相身邊警戒嚴重

(로ㅅ싸ㄴ누四日發電) 當地會議出席의希臘前首相『위니제로』氏의身邊警戒가嚴重한바此는同氏를暗殺한다는報가有한所以이라더라

會議休會

(로ㅅ싸ㄴ누五日發電) 近東講和會議에土耳其와露國이提携하야折衝하야聯合國側을牽制하고會議는十二月六日々지休會하게되얏는데英佛伊各國代表는新調合을請하라고各本國에打電하얏더라

聯合國開會

(로ㅅ싸ㄴ누五日發電) 聯合國은五日會議를開하고一般協定을作製하얏는데其同案은六日의本會議에提出할터이며六日의聯合國會議에는土耳其及露國委員도出席한다더라

聯合國讓步乎

(로ㅅ싸ㄴ누六日發電) 聯合國의協定한事項은尙且秘密에附하나聯合國은『쌰ー々넬ー스』海峽通過의軍艦數를制限하고且土耳其에對하야尙且讓步하라는貌樣이라더라

外米處置困難

(東京電) 日本現在商務省食糧局에所有한外米數量은約二十五萬石인데此는全部大正七年의購入한者이니保管維持上速히賣却處分할必要가有한故로同局에서는過般來此處分策에對하야協議한바現在民間米穀商에所有한外米의數量도約百萬石以上이며此等의處分難에苦心中인故로賣却에는其點을考慮하야海外市場에서處分할條件으로하고海外市場을選擇中인바右條件下에約十萬石의賣却이成立하고旣히七萬石을引渡하얏는데尙且右外米는旣히上海市場에서日本보다도比較的高賣한다더라

日本米放賣

(東京電) 日本農商務省은來十二月十一日米一千石을公設市場及公共團體에賣下하기로決하얏다더라

滿洲日本會社

(東京電) 朝鮮銀行에서調査한滿洲에日本人會社資本은十一月末日現在九億五千八百九十八萬二千圓(金)二十八萬二千元(銀)十九萬留으로前月에比하면二百五十九萬圓(金)六萬留가減少하얏고尙且前年同期에比하면三千八百六十二萬四千圓(金)이增加하고六萬留가減少하얏다더라

朝鮮豫算問題

(東京電) 朝鮮豫算은依然히有吉總監和田財務局長等이日本大藏省과種々折衝中인데目下雙方에互相對峙中인貌樣이나八日以內에는全部決定할터인故로問題의補給金도아마要求額에近한額을得하기々지活動하는貌樣이나다만公債는各地와同樣으로頗히困難할貌樣이라더라

殖銀債券盛況

(東京電) 四日부터賣出한朝鮮殖産銀行債券五百萬圓은六日終了하얏다더라

民事令改正

第十一條의六 朝鮮總督府의定한바에依하야府尹又는面長이戶籍事務의關하야期間을定하야屆出又는申請에催告를爲한境遇에在하야正當한理由가無히其期間內에屆出又는申請을爲치아니하는者는二十圓以下의過料에處함

第十一條의七 府尹又는面長은左의境遇에在하야는三十圓以下의過料에處함

一、正當한理由가無히屆出又는申請을受理치아니하는時

二、戶籍의記載를爲함을怠한時

三、正當한理由가無히戶籍簿除籍簿又는朝鮮總督의定한바에依하야閱覽을許한書類의閱覽을拒한時

四、正當의理由가無히戶籍或은除籍된戶籍의謄本、抄本又는朝鮮總督의定한바에依하야交付할證明書의交付를爲치아니하는時

五、其他戶籍事件에對하야職務를怠한時

第十一條의八 戶籍의記載를要치아니하는事項에對하야虛僞의屆出을爲한者는一年以下의懲役又는百圓以下의罰金에處함

第十一條의九 第十一條의三及第十一條의四에規定한者外戶籍、簿戶籍의記載手續、屆出其他戶籍에關하야必要한事項에對하야는朝鮮總督의定할바에依함

第三十條削除

第七十二條 中『及明治二十三年法律第三十二號第千十八條의規定에依한競賣』를削함

第七十三條 第一項을左와如히改함

人事訴訟手續法第十條及第十一條의規定은人事에關한訴訟으로人事訴訟手續法에規定이無한者에對하야此를準用함

附則

本令施行의期日은各條에對하야朝鮮總督이此를定함

本令施行前에生한事項에對하야는法施行法中、限定相續의承認及財産의分離에關한規定을準用함(完)

刑事令改正

第十五條 檢事는第十二條의規定에依하야被疑者를訊問한後刑事訴訟法第九十條第一項에規定한原因이有하다思料하는時는此를拘留함을得함此境遇에는刑事訴訟法第九十一條及第百三十一條의規定을準用함

檢事前項의規定에依하야被疑者를拘留한境遇에在하야十日內에公訴를提起치아니하는時는拘留를取消함이可함

第十六條 刑事訴訟法第百十三條의規定에依하야被疑者를拘留한時는更히刑事訴訟法第二百五十五條의規定에依하야拘留를請求함을得함

第十七條 裁判所又는豫審判事는必要하다認하는時는司法警察官으로하야금檢證又는押收搜索을爲케하고又는鑑定을命함을得함此境遇에는刑事訴訟法第一編第十四章司法警察官의爲하는處分에關한規定을準用함

第十八條 削除

第十九條 削除

第二十條 削除

第二十一條 削除

第二十一條의二 削除

第二十二條 削除

第二十三條 通譯言通譯生又는書記를通하야又는飜譯人으로하는境遇에는宣誓를爲케함을要치아니함

第二十四條 職權으로써附할辯護人은判事、司法官試補가아닌者로써此에充함을得함

第二十五條 刑事訴訟法第二百三十四條의規定은死刑又는無期의懲役或은禁錮에該한事件에限하야此를適用함

第二十六條 判事單獨으로有罪의言渡를爲한判決에對하야는證據에關한理由를省略함을得함

刑事訴訟法第三百六十一條의規定은此를適用치아니함

第二十七條 檢事又는辯護人은被告人、證人、鑑定人、通事又는飜譯人을訊問함을必要로하는時는其訊問을裁判長에게請求함이可함

第二十八條 削除

第二十九條 削除

第三十條 削除

第三十一條 刑事訴訟法第四百二十二條中五十日로有함은三十五日로함

第三十二條 削除

第三十三條 削除

第三十四條 削除

第三十五條 削除

第三十六條 削除

第三十七條 略式命令을受한者는正式裁判의請求를抛棄함을得함

第三十八條 刑事訴訟法第五百四十五條中市長村長으로有함은府尹又는面長으로함

第三十九條 朝鮮民事令第二條乃至第四條、第六條、第九條、第十六條、第十七條、第三十二條及第四十一條의規定은刑事에對하야此를準用함但朝鮮民事令第二條中前條及同令第三條、第四條、第六條及第十六條中第一條로有함은本令第一條에該當함

附則

本令施行의期日은朝鮮總督이此를定함

本令施行前言渡한闕席判決에對한故障은從前의規定에依하야此를抛하고又는此를取下함을得함

本令施行前申立이有한上告에對하야仍從前의第三十一條乃至第三十七條의規定에依함(完)

西村局長訓示(一)

今日道農務課長及道農業技術官의會는旣報와如히去四日에總督府에一會議室에서開催되얏는데當時에臨席한西村殖産局長의訓示가如左이더라

今에道農務課長及道農業技術官을召集하고諸般의協議를爲함에當하야所見의一端을述코저하노라

朝鮮에在한農業은各種産業中의大宗인데其盛衰興廢는直接半島의經、民衆의福利에影響되는바가大함은何人이라도又帝國의食糧政策上으로見할지라도其地位의重大함은各位의夙히熟知하는바이라只今에야世界의各國은戰後의經營에腐心하야銳意國內産業의發達、輸出貿易의振興에努力함은勿論이라一面에는會議의結果列强의各々其軍備를制限하야世界의平和를確保할目的으로써協定을遂하고只今에야旣히其實行期에入하야今後에在한各國의盛衰는主로文化的競爭殊히經濟的競爭에依하야其運命을左右함에至할지오從하야産業方面에在한列國의競爭은益々激烈하게될것은蓋何人이던지不疑할바이라此秋를當하야職을産業의任에當한各位는世界의大勢와朝鮮의現狀에稽하야他國에一籌를輸치아니할勇氣와熱心으로써銳意其本分을盡하기를切望하야不已하는바이라

有吉總監歸任期

(東京電) 過般에渡東後明年度朝鮮豫算에關하야和田財務局長과共히協力하야中央政府에對하야折衝의任에當하는中인有吉政務總監은九日定例閣議에서朝鮮豫算도大體査定에終了할豫定인으로十日午後東京出發로十二日朝에京城에到着할豫定이라더라

英國副領事就任

『에이、어、헤닝크믹』氏는今般에京城英國總領事館副領事로任命되야五日에就任한旨를同國總領事로부터總督府外事課에通報가有하얏더라

川角通譯官入京

海參威派遣外務部員公使館一等通譯官川角忠雄氏는元山에在한避難露國軍民의狀況을視察키爲하야六日夜에日本으로부터入京하얏더라

守屋庶務部長消息

中國視察中의守屋總督府庶務部長은該官舍에到着한近信에依한즉十一月二十九日에漢口로부터北京에向하야出發하얏다더라

各道農務課長招待

齋藤總督은九日午後四時부터農務課長會議出席者及關係者約四十名을官邸로招待하야茶菓의饗應이有하다더라

河晉間郵便自働車

遞信局에서는曩者計畫中이든慶尙南道晉州東晉州間郵便自働車遞送을六日부터實施하기로決定하고此地間及其以遠의發着郵便物은從前의人夫遞送을廢止한다더라

總督官邸午餐招待

齋藤總督은七日『에ㄹ키돈』氏夫妻를官邸로招待하야午餐의饗應이有하얏다는데陪賓으로는丸山警務局長八十島官房秘書官松村秘書官夫妻生田外事課長石崎囑託等이出席하얏다더라

朝鮮米輸移出額

三十一萬一千石
八百七十一石

十一月中朝鮮米輸移出額을聞한즉輸出에는玄米二十石、籾二百四十八石、其他二萬八千九百八十三石으로合計二萬九千九百九十一石、移出에는玄米十四萬九千二百四十二石、籾十四石、其他十三萬五千五百二十六石合計二十八萬二千六百二十五石으로總合計三十一萬一千八百七十一石인데今昨年同月에輸出合計七千七百八十八石移出三十萬四千七百六十六石合計三十一萬二千五百四十石에比較할時는約一千二百四十石의減少하얏스나此는日本의米作增收說과相待하야日本古米의出廻가增加한者이라더라

京城穀物在庫數

京城穀物組合調査한市內銀行、漢城、殖信、甲田、韓一、南大門、龍山驛等大倉庫에十一月末日現在의穀物在庫額은合計九千七十一個로此를同月十五日現在一萬三千七十一個에對比하면四千個가減少한바減少의主要한者는玄米一千六百九十九個、小麥九百六十二個、粟一千百十四個、糯玄九百七十八個、雜穀四百十四個等으로旣히出廻期에向한今日玄米其他가反히減少하얏슴은注目할價値가有한問題이라더라

保管貨物激減

京城銀行集會所調査十一月中漢銀、商銀、殖信、共益社四倉庫의保管貨物은入庫八千百八十二個、四十三萬七千七百四十二圓出庫一萬五千三千八十個六十二萬一千九百八圓으로月末在額은一萬五千三百八個七十三萬六千九百九十八圓이라十月末에比하야六千九百九十八個十八萬四千四百二十六圓이激減하얏는데月末保管品中金額은如左하더라

綿織物	八三二個	二八三、五五三圓
麻織物	七六	一五、三九〇
煙草	二、五五四	六七、九三二
雜穀	一、四三三	一八、〇〇五
麥粉	四、〇六八	一五、四四〇
粟	一、三六六	三、七〇八
線	八五	一四、七六五
和紙	三二	二六、一〇三

延社郵便局設置

大正十一年十二月十六日부터咸鏡北道茂山郡延社面因芝洞에延社郵便局을設置하는旨를十二月八日附官報로告示하얏더라

民聲

▲北米合衆國職業野球團은旣報와갓치昨日下午七時五十分南大門着列車로入京하얏다▲今日에全朝鮮軍과戰鬪를開始할豫定이다▲그런데그職業野球團으로말하면米國의都會도다著名한紐育市俄古等處의勇敢으로뽑은選手로組織한運動團이라그의技能은現代文明을證明하는學理를根據하야國際的大競技를實驗코저하는大雄心을抱有하고日本에初渡하야戰聲을大振한後에順路로朝鮮을歷訪하는것이다▲그러면이러케遠來하는嘉賓을무엇으로款待할가珍産奇物로그의情을表할것도아니오淸議作話로그의意를酬할것도아니오다만相敵되는技能으로迎接함이그의世界에轉戰하는本意를愉快케함이라▲그런데此에對하야宣戰을布告한우리全朝鮮軍으로말하면主將의李源容中央體育團의朴錫胤、孫熙運、大邱의金泰述、中央團의朴天秉、李泰熙、平壤의李鍾貴、徽文團의安益祚、金鍾文、培材團의馬春植、成龍華、張義植、朴容得、金星煥諸君과如한各團의主將으로編成한것이다▲이主將諸君은우리朝鮮球界의老鍊한宿將이됨은勿論이오過般日本에서球戰을決勝할時에戰勇戰術이追絕神妙하야同地의野球諸軍의肝膽을忽寒케하엿나니▲今番에도聲名을大揚할것은預期하는바어니와이는世界的大試合이라特히注意할것이라하노니誠男猛鬪하야勝利를大博하는同時에우리의世界的大英勇을表彰할것이라하노라

商況

大阪三品 十二月七日前場

	初付	止値
十二月限	二一〇、六〇	二一〇、三〇
一月限	二一三、〇〇	二一三、九〇
二月限	二一六、三〇	二一五、九〇
三月限	二一九、四〇	二一八、七〇
四月限	二二〇、五〇	二二〇、九〇
五月限	二二〇、九〇	二二一、〇〇

綿布飛犬	一二、七〇
同世界鳥	一三三、二〇
綿金布進軍	一三三、〇〇
同金鵄	一三、〇〇
綿米扇面	二三六、〇〇
同雙女	二二三、〇〇

大阪株式 十二月七日前場

銘柄	寄	引
大株	一〇三、三〇	一〇三、〇〇
同新	八二、八〇	八二、一〇
鐘紡	二八一、四〇	二八一、三〇
同新	二六二、〇〇	二六二、一〇
商船	……	四二、九〇
同新	……	……
郵船	八七、七〇	八七、七〇
同新	三〇、五〇	三〇、五〇
東紡	一一〇、三〇	一一〇、二〇

京取市場

京取暴落

昨日後場은大敗이別無變調로入寄되엿스나合倂問題가不進하는同時에人氣는漸弱하야京取는五十三圓에止하엿는데今朝大新이昨止보다六十錢低로八十一圓三十錢과鐘紡新이三十圓低로二百七十二圓二十錢으로入電되야本場人氣는益々軟弱狀態로立會하니京取는一圓四十錢低로五十一圓六十錢寄付하야中村坂田趙顯昆塚野市川南源橋下犬島賣에川崎洪鶴杓閔溶鎬中津有田池田新田田中買로步調七八十錢와四五十錢으로二三十錢々지賣買하다가漸落의勢로一圓으로五十圓臺에七八十錢內外로上下하더니小反하야一圓으로四五十錢々지多少波瀾을呈하다가結局三十錢에止하고仁取는付價無로賣買不成하고同新은中値四十二圓十錢으로三十錢에止하고安取는十八圓寄付로二十錢々지步하다가跡不成하엿고大新은八十一圓十錢寄付로步調二三十錢으로結局一圓에止하고朝紡은十一圓五十錢으로週間物에는京信이現落하야今週四十五圓五十錢으로來週四十四圓四十錢寄付하야七十錢으로步하다가小高하야六圓七十錢寄付로步調一圓二十錢으로十錢에止하엿고其他株도多少波瀾된狀態이더라

京城府長橋町六十番地
京城株式現物取引市場
株式仲買人 金應龍
電話本局 八五〇 八九三 八八五 八六九番 市場專用

短期取引

前場	寄	引
取	五一六〇	五一三〇
取	四二一〇	四二三〇
新	一八〇〇	一八二〇
新	八一〇	八一〇
紡	一一六〇	一一〇〇

後場	寄	引
取	五二二〇	五二四〇
新	八〇六〇	―
紡	一一八〇	―

京城綿糸布時勢 十二月七日

粗布三A	二六六、〇〇〇
同九龍	二五五、〇〇〇
同大A	二四六、〇〇〇
同金鷄	二三六、〇〇〇
同金剛山	二〇八、〇〇〇
同鵝鳳	一八六、〇〇〇
晒木綿作	一、〇〇六

京株市場賣買價 七日

株名	今週中前場
京取	……
仁取	一六〇〇
同新	四三五〇
殖銀	……
同新	三一〇
外銀	四九〇〇
[illegible]	一三〇〇
鮮銀	一三四〇
[illegible]	三三四〇
同新	三三〇
漢銀	三八九〇
同新	九〇〇
韓一	三七一〇
東拓	一五〇〇
同新	三三五〇
鮮土	八〇〇
朝紡	……
織毛	……
京電	三九〇〇
電興	三〇〇
朝郵	三五〇〇
殖鐵	五八〇
中鐵	三三〇〇
同新	七〇〇
滿鐵	一〇七〇〇
同新	三三九〇
東亞	……
同新	……
朝煙	……

大阪期米 十二月七日前場

當寄	二五、五〇
止	二五、七〇
中寄	二五、二〇

仁川米豆取引所仲買人
仁川府海岸町
谷仲買店
△長電話 壹參七番、五五番

仁川期米 十二月六日後場(稍々反騰)

止	二五、四〇
先寄	二五、二〇
(二節)	二三、三〇
(三節)	二二、九〇
(四節)	二三、〇〇
(五節)	二二、五〇
(六節)	二三、一〇
(七節)	二三、二〇
(八節)	二三、四〇
(九節)	二一、八〇
止	二五、四〇

仁川期米 小林藤右衛門

今前場은大阪初付二十五圓○錢으로六錢々지小弛한後連節稍高로二十五錢々지跳返함을伴하고當地市場은二十圓八十錢에始하야九十錢臺로返戾하야採合하다가結局二十一圓○八錢々지上伸한後○五錢에前場을止하엿는데今後場에入하야阪地初付二十五圓二十錢으로二節亦二十錢인情報를接하고立會하니

▲第一節 當中兩限은不成이나先限은二十一圓으로前止價보다五丁低히初付하다

▲第二節 阪地四節二十五錢인反高를受하고當限은二十一圓으로中限은二十圓八十八錢인各一口式生하고先限은○五錢에始하니買方이稍々活氣를帶하고買進하야十二錢々지跳返하엿다가一錢에止하다

▲第三節 當限은不成이나中限은九十錢에始하야八十八錢으로九錢々지上伸하고先限은十二錢에始하야一錢々지小押하니此際에阪地가二十七錢인稍高를接하고場面은又復硬氣를添하야十五錢으로跳返하야止하다

▲第四節 當限은不成이나中限은九十錢一口를生하고先限은十五錢에始하니此에는買氣亦上伸치못하고僅히六錢을示한後十五錢에止하다

▲第五節 當限은二十一圓八十錢

神經過敏의場面

朝米의阪地初付는二十五圓二十錢으로昨止價보다七丁低히入報함을따라當市場은㊄의賣物로二十一圓○九錢에初付한바되엿다阪地의情報를據하야强弱雙方이共히乘替賣買의關係로依然鈍狀을作하는中朝鮮米의低唱과相應하야買浴의慣習은猝然轉換키難한模樣이며當地도目下情勢는地場有力筋의買出로幾分底堅의態를示하나阪仁의鞘가二百三四十丁으로縮少하엿든것이四百十餘丁々지擴大함을觀하면大勢의頭重임을推測할지라然而目下二十一圓臺를中心戰線으로하는現報는稍히買玉整이沸騰할時에는一般來客으로하야금一大硬材料가潛在인듯한感想을與하나其實은人氣의關係이며賣手를振할時에도買氣의疑嫌을呈하나亦特別한材料가無한所히神經過敏의場面을作할생이라이와갓치一張一弛의狀態인데人氣를刺戟할만한材料가現出하기前에는保勢支離할줄로觀測하더라

十二月七日前場(靜穩微波)

昨後場은阪地情勢는怠慢不振하야初付二十五圓二十錢으로二十五錢에止하는五錢移動에不過하고當市場은稍히硬氣를帶하고二十一圓에始하야十六錢々지奔騰하엿다가結局十四錢에止하든餘勢로今前場에入하야阪地初付二十五圓二十一錢인情電을接하고賣方이反히活氣를添하야立會하니

▲第一節 當限은不成이나中限은二十一圓인案外高價를現하고先限은二十一圓十錢臺에서㊀의突發的賣物이演出하야昨止價보다五丁低히○九錢에止하다

▲第二節 阪地後報三十錢二十九錢인高報를受하고當限은不成이나中限은二十圓九十九錢에始하야一圓々지小戾하엿다가九十九錢에止하고先限은十九錢에始하니此에는仲力치못하고稍々低下하야十五錢을示한後十六錢에止하다

▲第三節 阪地四節三十錢을伴하고當限은不成이나中限은二十圓九十九錢一口를生하고先限은十五錢에始하니場面은稍々解弛하야十錢々지又復下押한後에止하다

▲第四節 阪地後報二十六錢인稍低를接하고當限은不成이나中限은九十七錢一口를生하고先限은○五錢에始하야四錢々지稍押하엿스나此際에阪地三十錢인後報를傳함으로買氣更히旺盛하야十六錢으로跳返한後十四錢에止하다

▲第五節 當限은不成이나中限은九十錢으로八十九錢을示한後二十一圓으로返戾하고先限은○九錢에始하야此際에阪地三十四錢으로八錢인高報를傳함으로場面은俄然硬化하야十八錢々지奔騰하엿다가十六錢에止하다

▲第六節 當限은二十一圓九十五錢一口를生하고中限은二十一圓으로二十圓九十八錢々지小押하고先限은十七錢에始하니人氣更히焦付하야十六錢々지稍押하야場을止하니高低의差가十四丁이엇더라

仁川米豆取引所仲買人
仁川府海岸町三丁目
ⓝ 野中喜馬藏
電話長三〇九・六二五・九一二番
電略『〇ノ』又ハ『ノ』

公定價格	
初付	二十一圓○九錢
止價	二十一圓十六錢
高價	二十一圓十八錢
安價	二十一圓○四錢
一節	二十一圓○九錢
二節	二十一圓十七錢
三節	二十一圓十二錢
四節	二十一圓○九錢
五節	二十一圓十五錢
六節	二十一圓十六錢

株式會社仁川米豆取引所仲買人
㊥ 仲買店 趙大衍
仁川海岸町三丁目 電話長九〇三番

▲第二節 阪地後報三十錢二十九錢인高報를受하고當限은二十一圓인案外高價를現하고先限은二十一圓十錢臺에서㊀의突發的賣物이演出하야昨止價보다五丁低히○九錢에止하다

▲第二節 阪地後報三十錢二十九錢인高報를受하고當限은不成이나中限은二十圓九十九錢에始하야一圓々지小戾하엿다가九十九錢에止하고先限은十九錢에始하니此에는仲力치못하고稍々低下하야十五錢을示한後十六錢에止하다

▲第三節 阪地四節三十錢을伴하고當限은不成이나中限은二十圓九十九錢一口를生하고先限은十五錢

仁川米豆取引所仲買人
坂倉仲買店
有價證券 現物賣買
電話長一四一番 長六五〇番 三五五番

七日後場(電話)

初付	二十一圓十九錢
止價	二十一圓○八錢
高價	二十一圓二十錢
安價	二十一圓○七錢

公定價格	
一節	二十一圓十九錢
二節	二十一圓二十錢
三節	二十一圓十九錢
四節	二十一圓十錢
五節	二十一圓十八錢

取組高	
當限	一千五百石
中限	一萬一千九百石
先限	二萬五千一百石
總賣買石數	五萬五千一百石
不期總取組高	五、九七五、六〇〇

仁川米豆取引所仲買人
㋮ 廣澤正次郞
電話 長七〇番 六五番 六六番
仁川宮町廣澤米穀部 電話長三〇七番

同盟罷業을 再次計劃
數百의 車夫 天道教堂으로 集合
—◇경관들은 히산명령에 분주하야 단이고◇—
—◇인력거부는 가둔사람을 노라고 소동◇—

을가조합의폐업선언으로써 리발로금과 인력거임금에더하야 료금을나리게되야서 한편으로는리발로금을너머밧는동시에 또한편으로는인력거부들이더욱단결(大同團結)을모아가지고우리들의생활이오날과갓치 말못된데에빠지는일마못되는데 더욱이외갓치니리게됨은어더까지던지 우리로셔그더로둘수가업다고하야지난달에

인력거부 동맹회까지조직하여그에대한임원까지선뎡하얏다함은 임의본보에 보도함과갓거니와그후오날까지 일으도록그인력거부들의주장하든바와갓치 완전한히결을엇지못하게되얏슴으로그회의간부들은여러번가경찰서장이라든가경찰당국자들에게디하야완전한히결을속히하여주도록 말을하얏슴도 허수아비로도라가고그뎐과갓치주인측에서는 인력거부에게더한합인을 취함으로엇지할수업시

작일오전 아홉시부터시닉에잇는나인력거조에서인력거를쓰는인력거부이빅여명이 시내경운동텬도교당(天道教堂)안에모되여최후의총회를열며 한편으로는주인측에셔 만일우리들의주장하는바를앙이들이줄것갓흐면 우리들의최후욕뎍하든바 리삼과갓치총동맹휴업(總同盟休業)을하자는의미하에모히게되얏셧다더라

解散命令
종로서원이총출동
인력거부들은뒤로

이와갓치 인력거부이빅여명은 아참아홉시로부터경운동(慶雲洞)텬도교당압헤모이여 각기그들이수군거림이 우순중뎌한입에까지 밋칠가하야져동순사파출소에서는즉시종로경찰서로뎐화를걸어더단이그들의힝동어불온하다고하얏슴으로써종로경찰서에서는고등계원이며 경우계게원들이 총출동을하여가지고 급히그들의 모이엿다는경운동일뎌로가게되얏셧다

그리하야 순사이며형사의일뎌는 이빅여명의 인력거부가모되인 경운동텬도교당으로가셔 한편으로는 그들을텬도교문밧그로 디여쏘치며 한편으로는 그들을엄중이경계하게되야 그들의 이빅여명은 텬도교당압 운현궁(雲峴宮)터문밧게모되며 「엇지하든지오날에우리가모되인것에더한히결을하도록가지를안코모되여잇겟다고」 하더라

康一成君은引致
大谷君과갓치
본뎡경찰서로

어와갓치경찰당국에서는섬각지도안엇던인력거부側이별안간모되여동맹휴업을하느니 인력거부의주인을뎌하야최싸의 가결을하느니하고 천여명이 텬도교당안에 모되여방금총회를한다는소문을 종로경찰서에셔와본뎡경찰서에셔듯고 독시경관을 파송하여 그들을단속하며만일에 입을열려하야 불온한힝동하는자를 데포아지하려는게회인동시에 또한편으로는즉시장은 즉시종로경찰서에서 인력거인부 동맹회의 두목되는강일성(康一成)을잡아보니라고의뢰하엿슴으로 경운동으로경관에달녀가셔 어입에더한 위험인물로주목하던강일성군이며 일본사람의더곡(大谷)두명을즉시본뎡경찰셔로인치케되얏다

悲慘한 哀寃
주인을살닐뿐이요
자긔들은살수업다

당일모임에중요인물노주목하든강일성군을 경관에붓녀가지고 가게됨으로 수빅여의 인력거부들은엇지된일을몰나 더욱분긔를니이며왜잡아가는냐고 경관에게 질문까지하게되얏스며 강군을 가지못하게하얏스나 엇지할수업시 강군은잡히여가게되며 이들안 우둑허니서셔 강군을엇지쳐치하기만 고디하는중에엇더한이는말하되 「오날에우리가이와갓치 모이는것을 경찰당국자로서는 붉은하니 무어니하고 우리를모이지도 못하게할쌘안이라 금거야에 강일성씨를잡아가개까지하니 어듸이러서야 아모힘도업고권리도업는

우리지만 경관을바라고지닐수야잇겟슴닛가오날에일으도록우리들은 낫분힝동을하여 온일이업는데 우리를이와갓치나 가혹하게까지녀단한다는것은너무나우리들노하여곰 불평을 품게하는것이안이겟슴닛가 경찰당국에서는 어듸까지 잘쏘쳐하여준다고 구실만삼고 오날까지아모소식이 업슬뿐만안이라 우리의주인측에서는더욱가혹한 쳐치만하게되얏 슴니다한가지레를말하면우리가텬일

쌀을훔녀 번디야일환오십젼이상으로 이환오십젼아지 범니다 그러면 우리가 평균으로이환을번다고하면 그가운데에셔 주인에게주는것이인력거빈디금으로륙십젼이상칠십젼을주게됨니다이러고도만약 인력거가 어디상하면이것은너의들이잘못한것이니 너의가곳쳐라하며그외의무것이든지인력거의 부속품은다 우리가돈을뒤러셔하라고합니다그러니이환을번디야우리에게로 돌아오는것은 불과

몃십젼에 지나지를안슴니다 몃십젼이란것을 가지고우리집안의 살님살이를하여갈나니어리도숙불더경이요우리가만약안이번디도이모냥으로지닉기는일반이닛가우리가 어렷케하야서 주인측에더한돈벌이를하여주는것보다 우리는 그만두는것이 나을터임으로오날에모되여가결을하자한것인데강군을잡아갓스닛가오직우리는어데아지이곳에서강군이나오기를기다리겟슴니다」라고하얏다

數百車夫가 鍾路殺到
종로경찰서압에모되여가지고
강일셩군을내여노으라고소동

이에더하야종로경찰서에셔는 여러가지로그들이헤여지기를말하얏스나결국헤여지지을안이하고그터로모여만잇슴으로종로경찰서에셔는경무계주임이하경부몃사람이경우동으로몰녀가셔인력거부들을일가예모아놋코일장셜유를하며속히이곳에엇는것보다도각기직업소로돌아가셔취직을 하는것이엇겟다 한편속시히산불명하며경관들에내밀므로엇지할수업는수빅여의인력거부들은 락원동부근으로 내리밀니며종로경찰서에 살도하여가지고 강일성을 왜잡아왓는야 우리가오날에모이지는안을터이니강일셩군을속히니노으라고종로경찰셔압헤셔크게웨치게되얏다더라

朴承煥은引致
본뎡서에인치취됴
종회를둥지한다고

누에말한바와갓치작일오전아홉시에텬도교당으로 인력거부들이오이게하기위하야 저작일오후에시니태평통에잇는태평조(太平組)에셔인력거를쓰는박승환(朴承煥)은시니나인력거조로 놀아단이여소집하기를말하는중에 본뎡경찰서외순협하든순사가 말뎐하며즉시본뎡경찰서로연치하야방금취조중이라더라

金學燦이被逮
조선독립을운동하다가
혼춘에서경관에게피착

함경북도경원군(慶源郡)출셩으로셔당교사(書堂敎師)노못잇하든김학섭(金學燮二五)은삼일운동시디의만세소리가잇슨후 국경선너흔춘(琿春)과로령(露領)방면으로가서죠선독립운동과적화선뎐(赤化宣傳)에 종사를하다가금년십월에일본군이로령을털퇴한후 부하약간명과함석지난십이월이십일밤에혼춘현경신향(敬信鄕)구사평(九沙坪)에사는자긔의숙부되는김리호(金萊鎬)집에와잇다가 흑뎡자(黑頂子)주재경찰관에게톄포되얏다더라

京城全市의 電柱赤化
警察署에서는俄然瞠目
련주마다붉은조희를붓쳣는데
이것을부치기는경셩부청에서

근일에 련설은 졈々변하고사상은동요함으로각사회에 흘너들어오는사상은 말할수업시변하야 잇는중에 사법관청에셔 돌연히활동을리시하야 조선언론계에잇는 사람심여명을 구금하고 아죽까지도엇을말지못하는 형편에잇슴으로 일반사회에셔는 우순일인지를 압지못하야 티단궁금히 역이는중인디작일에는 돌연히 인력거차부가쏘다시 동맹휴업을 새속한다고하야시닉의 인력거의왕리는 하나도볼수가업고 인력거부들은 호몸으로떼를지여 종로로경운동으로 수빅여명식도라

단임으로 경관은눈이동그려져엇지할줄을모르고사면으로느러서서 경계를하든중인디 작일뎌오경에는 돌연히 경성부시가에잇는 련주(電柱)에는 사방무치가랴되는 붉은조희를부쳐는데 이상하게도 황금뎡방면으로는 더총(大塚)이라는도장이마져잇고 종로시가디에는 리우(李禹)라는 도장이마져서 련주마다부쳐잇슴으로 일반시민은 그것이무엇인지를 알지못하고

단지근일 에는붉은빗을비상히써리는터임으로 이것은 필시적화션뎐(赤化宣傳)의의미이라고일반은주목하야보나확실한의미를몰나셔 련주더마다 수십명식달나부터셔 히셕에분주하고 경관도역시무엇인지갑지를못하야사면으로활동하야 범인을잡고자한결과에급기부치는사람을차져본즉그것은 다른것이안이라경성부청에셔시닉련주를묘사하야

장차과세 를하고자함으로 련주를묘사하고 표지로부친것이라는데경찰서에셔는한편으로분주히뛰엿셧다 이에디하야종로서의모경관은말하되이것은경성부의잘못이외다 ……는일반으로하야금의심을이르키게하엿더라

사게하는 것은무슨리유라……

手藝品의展覽會
泰和女子舘에서
연구일오젼십시부터

시니인사동(仁寺洞)에잇는녀날녀헐판자허에 서로히우리의녀자를교육하는데화녀자관(泰和女子館)에서는 연구일 오젼열시 부터오후네시까지 그학교 학생으로부터만든수예품진렬회(手藝品陳列會)를여러한다는데당일에는성모들의만든녀와 제봉품 과자등속을현장에셔팔게되다는데 이학관으로말하면입의세상에다아는바와갓치 어련아희들을교육하는곳이안이라 엄의부인네되야잇느니또는녀가뎡에셔가져잇셔가지고시더의공부를하야보고자하나 소학교에를돌어갈수도업고 중학교에는간더야니올수도업게되는중에잇게되야무한근심하고우는 안은녀자동포를위하야 셔양녀자의뜨거운사랑아리에셔조직된터임으로학은비록만치못하나 그들의수예품으로말하면 가상한것이만이잇는더인고로 일반이보는터턱우자미가잇스리라더라

同盟會創立의 經過
大阪朝鮮勞働者三萬名이
여러가지난관을지나면서도
필경에는셩립을하고야말어

일본더판(大阪)에잇는우리조선로동자삼만여명이 련합하야 더판조선로동자동맹회(大阪朝鮮勞働者同盟會)를발긔하는데 동경에잇는일본져류 조선로동자 상황됴사회(日本在留朝鮮勞働者狀况調査會)에서 후원하기위하야 그회집힝위원사오명이 나러오며 또는일본로동총동맹회(日本勞働總同盟會)에서도 갓혼운명을가지고잇는

이단데에 더하야구테덕으로 후원한다함은 어미본보에보도한바어니와 이동맹회의 준비는빅방으로 원만히되여서 이달초하로날오전열한시사십분에서구十도시민뎐(西區九條市民殿)에서리회하얏는데 들어가자 밀지말라고웨치며 모여드는 로동자들은근칠빅명에이르럿스며 일본로동총동맹회의간부 더시(大矢)야뎐(野田)서미(西尾)산내(山內)등제군의얼굴이

보이는등 조선의장돌님과갓흔 방랑임본로동자인 야우사조(野武士組)의 회원제군의 얼골에퍼人독퍼人독보히는등구조경찰서장(九條警察署長)은 부하 정복경관삼빅여명을 회장후면에 민복을식히여 갓흔등또는사복경관수십명을 회중속에셔거느리고갓흔등 실로참무시무시한 경계이엿스며 회장이셔여지는듯한 박장속에 송장복(宋章福)군이등단하야기회를

선언하고 송봉우(宋奉瑀)군이취지셔를 랑독한후 곳계속하야 송봉우군의 취지셜명이잇섯고손명표(孫明杓)군의경과보고가잇난후 곳계속하야 김종범(金鍾範)군이등단하야 규측토의를 하게되얏다는데

場內에風波忽起

규측을 축조하야 토의하는중홍연히회중으로셔한사람이이러서더니셰여진징소리갓혼목소리로규측전부를 비난하며 또는취지셔와또는발기인을비난하며발기인이십만여명의 조선로동자를 방해하지안케하얏다고인신공격을비롯하니사방에셔이소리에응하야올타올타고떠듯는자들에 쏙々 어러나게되니일반청중의 얼골에는 홍분의여상한구름어지나게되자

송봉우군 어어러나셔그의 말못됨을 석서반박하니 그자는말군에막히여 변론텬막되지 안이하는말을 드러너머 우리갓흔신……

유력자라 는것은금전이엇거나 그럿치안이하면 엇더한권력이잇는자들과 세력잇는자들에게 우리는 돈잇는자를과 권력잇는자들을미쳐하는우리입으로……유력자에게는 상의를 안이하겟다고 쳐치니사람에 흥분의귀운을떠우교엿든 회중은 그럿소올소라는고함을련발하게되니 그자는료합을 지르며 김종범군을 향하야면단으로셔여오로며구라하고자하니일

일어서며 더소동에되얏는테그자의성명은리모(李某)이라하며일반은 말하되 그자는 이왕부터경찰서 련락을취하야가지고조선사람단톄에 더하야 방향하고허몽돈자이라고하더라

會場內에痛哭聲
회장에서곡성이랑자
경찰서장은회산명령

회장이 그와갓치 소동이되며미리사방에 복병하야두엇든 경관은단우에진을 치며길뎐(吉田)서장은히산을 명함에라고 하자순사는눈에피거운이셔돌며 참부로회중을모라니며나가는사람은삽사인연요 안어가는사람이 편부라곤듯히승으로서 이수만(李守萬)군은 비분강기한 소리로 이일을엇지하나

이놈들을 언제나죽이나하고 얼굴에눈물을 흘니더니말을못하고 안련통곡을하니 그럿치안어도 살기가미만한 회중은더욱분기하야방향을찻지못하고허둥허이니피잇고쏫잇는자의가삼이러지지안어할자업는지라하야사방경관은송장복、김종범、리수만、송봉우、디시군등십여명을 금속하엿스나분요를너르킨리션홍(李善洪)등에

뎌혼태도 는우서웟스며또는일반으로하야금의심을이르키게되엿더라

署前에會衆殺到
검속한사람들을
너여노라고고함

이러하게되야회의중은경관의측익에산산헛터지게되엿스나 수빅여멧의군중은구조경찰서문전에 삼도하야금속자를 너이라고함놈지르는등경관은 진을치고막는등부근일반일본인들은 모히여듯는등살로형언할수업는상태에싸지엿더라

再次로總會開催
몰니여나왓든회중
또다시모히여기회

경찰의위협으로창립총회를못하고헤여졋든회중은 경관의터도에분기한성각에 일층더하야더욱거새가하날을써를듯이 데이장소에모이여규률이정제하고 활거가발발한중에서 오후세시에오이엿다가동다섯시아지모든의사를 진힝하야맛을맛치엿스며 그취지셔는니무더신(內務大臣)의 명의로치안방히(治安妨害)의문구가잇다고해부압수하엿는데 일반은말하기를그취지서에비교하면 오히려온건한것을압수하얏다고하야 일본지식계급의여론이비등하얏스며 그동맹회의괴선된임원은아리와갓더라

執行委員長　宋章福　書記　池健弘　金淵錫　財務　金烈鳳
執行委員　崔泰烈　梁旺錫　洪佑瑞　尹明樹　張達奎　金公海

虛名의懇親會

조하로날검속된 송봉우(宋奉瑀)김종범(金鍾範)송장복(宋章福)군등삼명은초일일오후다섯시경에리모(李某)라는보증으로어일밤차로 곳동경으로보니겟다는조건으로 무사히나왓는데 모도가소위흑표(黑友)회의인물이라형사를뒤에붓치고경찰서문밧그로나오니 수십명여로동자와기라여러사람들은셩여넘치는가운데에셔 각자도라갓는데 리선호일파가금속된사람와 동명회사람들과동경에서나리여온도사위원들에게 자리가열단이되엿다는 봉명회를파명을식히나는야신으로 그와갓치한것이안이라는변명인지 간담회를엿엇는데 외면상으로는셔로웃고맛치엿스나 내면으로는아직아지 피차뭉치인성각이골니지안이어한모양이더라

滿洲情報
寧古塔同胞의教育熱
데일회진급식날을리용하야
유지쳐울연구호바연죠답지

……쪽을떠나셔 멀니만쥬리(滿洲里)로와서번리아(西伯利亞)에헷터저엇는우리동포는 아모의 위로(慰勞)도업고 아모의원조(援助)도 업시셔리아칠과 눈바람밥에 눈물을파한척하는동시에 텬편으로 중국길림성녕고탑(吉林省寧古塔)에는우리동포가이주한지사더년간에

만여명에 달한지라당디유지자는최계화(崔桂華)씨의경영으로사립녀명의숙(私立黎明義塾)을창셜하야 쳥년교육에열심하는바 우리민족의기원월이요 또상당이라칭하는십월초하일(學年)을뎡하고 음십월초칠일 오후일시에동의숙니에셔 데일회진급식(第一回進級式)을거힝하얏는데 수장최계화씨의사식(司式)하에 진급장과다수한상품을주고

간동한말 로훈시하얏스며리빈의신지형(申仲衡)의외셔져의격렬한 권학어잇슨후에 학성더표로구수만(具秀萬)군이제부형의열심권학함에 감복주렁(感服遵行)하겟다는말로 답사하고 류랑한창가……(學校永久持策)을강구한결과……

연조금을 모집하기로하얏는데 숙장최계화씨가 더양러셔 조문빈(趙文伯)김연원(金演元)량씨가각빅원셔용구(徐龍九)리근(李根)씨가각이어십원을……또부족액은분담모집하기로하얏다더라

寧古塔의開天節
창가와례포로써
셩디히경축하여

음십월초삼일은 우리빈달족의시조되는단군(檀君)으로셔 태빅산단목하에셔하강(下降)하신날임으로길림성령고탑(吉林省寧古塔)에거주하는 우리동포는

긔념하야 당디최계화(崔桂華)씨의발긔로 사립녀명의숙(私立黎明義塾內)에셔 당일오후 긔원절축하회(紀元節祝賀會)를셩더히거힝하얏는더 참회한동포가미여명인바 명각에는수성불화포예웅하야일동이국가를교장한후에 동숙장최계화씨는강더한말로개회식사를하고 학성들은창가로써회의화긔를돕고또리명혁(李明赫)씨의취미엇이

계속하야 혹은비분한연사로혹은강개한뎨도로 축사를술한후에는바람이뉴뉴하야 황량고적한북만산하(北滿山河)를진동하는데포(禮砲)소리에따라서비당연축 만세를세번부로교식을폐한후주찬(酒饌)을넉넉히 흥젭더하고일동이여흥으로거룩한이날밤을지내엿다더라

大同團結을又復計畫
在大阪朝鮮人各團體
이단결이실현되는날에는
계급운동이일어나리라고
당국에서는대단히주목중

일본더판에잇는조선사람로동자일동이련합하야로동자동맹회를조직하얏다함은전긔와갓거니와최근에 또다시여러단례를련락하야더동단결을하고자계획이진힝되야불원간에창립총회를거최하고자준비하기에분망하다는데그판별이실현되면 다시계급투정의봉화(烽火)를들듯하다고 시터가이상한셔임으로 당국에셔는 미우주목을하는중이라더라(더판던보)

同會의綱領 (全文)

一、우리는우리들의團結의威力으로써階級鬪爭의勝利를獲得하기爲하야生活權確立을期함
一、우리는우리들의膏血을搾取하는資本制度를打破하고生産者를本位로한新社會의建設을期함 (더판)

紀念舘의落成式
구세군에서건축하든
고리도식씨의긔념관

시니구세군조선본영(救世軍朝鮮本營)에서는 구세군부령(副領)고리도식(故李道植)씨의긔념관(紀念舘)을 서더문밧아현리(阿峴里)의건축중이더니 근일에락성이되……

南浦에窃盜熾盛
경찰더도경계중
일반도주의할일

성향을 물론하고 미년년말이갓가와오면 도적이만히 성김은년년히잇는일이라 그러나금년은일반재계(財界)에타격을바다그리합인지는압수업스나 진남포디방에는요사히 미일밤삼사처에서 도란사건이발성함으로 당디경찰서에서는순찰더로하여금크게경계중이라는더일반인사도 주의합이가하겟다더라(신남포)

載寧에風說流行
관청에셔곡물을압수

요사이황히도지녕(載寧)디방으로부터진남포(鎭南浦)로오는인사의말을들은즉 지녕디방이금년수히로인하야 비참히된일은일반이다아는바어니와 동디방에는요사이괴괴한풍셜이류힝하기셔문에 진남포로들어올곡식이 만히오지못한다는데 이제그풍셜에디기를들으면금년수히로인하야 지녕디방에거주하는인민은 곡물(穀物)을팔것이업슴은 당연한일이라하야당디셰관과경찰서에셔는 지녕디방으로부터오는 곡물은선부압수한다는말이 만히류힝하야저녕디방에는 한이야기거리가된다더라(진남포)

孫督軍을詐欺
돈만밧고도망하여
인도에위반됨으로

최근텬진(天津)으로부터온사람의말을드른즉 중국텬진경찰청(天津警察廳)으로부터조선사람박모(朴某)를일본조계경찰(日本租界警察署)에게로 인도하엿다는데 그니용을들으면 당초박모가미국(米國)에류학하다가 조선에도라온후 즉시길림성(吉林省)에돌이왓는바 그사람은 폭발탄(爆發彈)을 잘제조하며 또인조금(人造金)을 잘제조하는기술이잇고 길림모부관장(某關官長)으로더부러 교분이

친밀하게 되엿슴으로동부관장이 손독군(孫督軍)에게 말하야동씨의 진출소절수(振出小切手)로여형관은호(永衡官銀號)에서금오만원을 차저셔 박씨에게주엇더니 박모는그돈을 바다가지고텬진으로 동낭하얏슴으로 그부관장은더단히 놀니여사면으로 종적을수담한결과 텬진에셔 붓잡어동뎌경찰셔에 인도하얏는바 동박모는경관의심문에더하야말하되

오만원을 수취함은사실이나 인조금세조의 약조는업고 그돈을밧기는 쪽할한바셔조하야 오귀부(吳佩孚)와거디파낙양파(洛陽派)을암살(暗殺)하기로약조함인데그뒤에 성각한즉 그러한괴악한계획은 인도에위반되는 일인고로도주하얏노라고 진술하얏는데 텬진경찰셔는 오씨부의 관하임으로크게놀나 즉시추적(追跡)하야 온부관장을더포하야엄중히

신문하는 중에 텬길림독군포귀경(前吉林督軍鮑貴卿)씨가너용놀듯고봉직화의(奉直和議)가어일로텬영하야 쏘파렬됨을 념려하야관헌에말하되그죠선사람은그뎐에내가 사용(使用)하던 사람인족결코그런음모는안이하얏슬터연죽보셕(保釋)하야달나고간청함으로경찰청에셔는그사정에곤난하야일본조계경찰에인도함이라더라

京城專賣支局의大火
던긔장치한간에서일어나서
공장싸지련소된바손히불소

작일오전일곱시 십분경에 시니종로사뎡목에잇는 경성전매지국(京城專賣支局)에서는 불이나서한참동안은 불빗이하날을 써르고소할동뎌문경찰서와 각소방터가 출동하야 일시뎌혼잡을 일우잇다가동사십분경에나되야 겨우진화되얏는데 원인은공장엽헤잇든던긔「시우치」를장치하얏든간에셔루던(漏電)이된것이라는데 그던긔장치실

哈市에大火頻頻
損害가二十五萬
사흘동안에네곳에나
원인은굴둑불이라고

지나간십일월이십팔일오후십일시에합이빈(哈爾賓)부가뎐(傅家甸)북오도가(北五道街)동텬직물공사(東川織物公司)상층에서불이나거시작하야 화광이충텬함으로 로중(露中)량국의소방더가합력하야불을끄기에힘을다하엿스나화셰의극히강텬함으로 끄지못하고 전경은빅오십여간의 상층양옥과 직물공사의상품에여기타장물아지전부소실되엿스며 만여쥬아동안이나결난바손히는

십오만원 어라하며동에십구일오후팔시에 동디팔도가잡화졈(同地八道街雜貨店)에셔불이나셔네시간동안에소실된손히는여만원어라하며 동삼십일오전십시에동디두도가동발상잡화뎜(同地頭道街東發祥雜貨店)에셔도 불이나셔동일오후팔시께 계우진화된바 삽십여간삼층양옥과 잡화소실된 손히는

팔만원이 라하며 십이월일일오후삼시에 동디부두구 칠도가추림양힝(同地埠頭區七道街秋林洋行)은 합이빈에셔유일무이한로국인경영하는 큰상뎜인데 불이나셔동오후팔시에 진화된바 손히는십만원이라는데 이상못은 화사의원인은 한더디방입으로 란로에불을과도히피여셔 그연돌에셔 불이난것이라함으로 특별히 우리동포들은 외국사람의집세를 맛하잇는더에 더욱주의에 주의를가할필요가잇다고한다더라

汽車에轢傷
녀자가아희를안고
긔차압흘지나다가

지난오일오전령시오분에 경원선(京元線)북힝렬차가의정부(議政府)역을도착할셰에 고양군수석면화뎐리김만리(高陽郡水色面和田里金萬伊)의안히되는손씨(孫氏二七)가둘지아달되는김수련(金壽大二)을안고 차가뎡거하기도전에차에서뛰여나리다가 차머리에 부되쳐어동편선로에로여러져서 올은편다리에큰상처를당하얏슴으로소할경찰서에셔는 곳공의를불너셔응급수당을하야곳피히자의실부되는양주군시둔면자암리(楊州郡柴屯面紫岩里)손성운(孫聖雲)에게로인도하얏는데 성명에는관계가업다더라

大同江에流産屍
여달달된아희를
강가에다너버려

시난오일오전열한시경에평양신교디(平壤船橋里)압뒤동강(大同江)불가에셔는어린아희의시태한아를발견하얏는데그아희의시대를보고너강주측컨더아희를빈인지여달달가량이나되여류산(流産)한아희어며 이와갓치 악착한힝동을한자는아직도 알수업슴으로 목하당디주저소에셔는 각방면으로 수색하기를마지아니하는중이라더라(평양)

桶楔? 魔窟 (三)
善後策은在何
爲先內部를改良할일
계한뒤에도겟돈은내일것
계중재산은계원에게분배

당국에셔도동계의폐해됨을모르는바는안이나이것을졸디에업셔일것갓호면계돈사람들의손히가업지안어하다하야 이셔까지묵허하야온것인듯하거니와 당국의방침도종독부터가가업스면 될터로실힝치못하게한다함이 곳 그러한부셔당한죽덕아리케서 여러사람의손히가되게하는것은다시허락지안이할것을가히알것인즉 이것은그런폐히되는물건을차차폐지하는방법어니그런것을다시는서로허가치안예하고이왕에잇는것만차차쳐치하야바리연예세국에론마굴을파괴하야번면계급에만은힘복어될것어라

그런즉 롱계라하는것이다시는서로셩기지안이할줄알겟스나 이왕에잇든것은 엇더케조쳐하여야원만히 히결이될는지 어에더하야는 당국에셔도방금연구중에잇는듯하거니와 이것을여러가지관계상 졸디에업시지못할것갓호면한가지조혼방법이잇스니 엇지하면원만히히결되겟다는방법은더강말하야 이를연구하기에고심중에엇는당국제씨의참고거리가될아하노라 더져롱계를도박이라하는것은계를라먹고는잘바지는것으정당치못한일이니 지금갓치밝은세상에다만한돈이라도무리한돈을먹는것운도져어허락지못할것인즉엇던게를물론하고 이왕에라먹고간사람은 어더로갓는지일일히차질수업슬것이니 이왕에타먹은사람은물론하야바리고 이제로부터셔로타는사람은 계를타먹은후일지라도제ㅅ돈은제ㅅ돈더로계를맛칠셰아지니게하는것이한가지오그다음에는 절더로고리더금을못하게할것어니 미삭리자를서푼이나녀푼만밧을지라도 그리익어적지안어한것인디 철수에갑붕어라는무리한리자를취하는것은 심히온당치못한일인즉 이다음부터는경변으로취리케할것이한가지오 또그다음에는 계중에셔리익어남는돈은계숩이들의살놀씨근것이안이라계에모히는돈이얼마든지 그전부를계원임동에게 평균히분비하야줄것이한가지라 어제로붓터는엇더한동계든지 이세가지조건을실시할것갓호면 불공평이라든지폐히라는것이엽셔질것이라 그리하고어왕에엇든것이다업셔지는동시에는 다시셔로하지못하게한속동계라는것이자연히소멸될것이라 그런 이동계가다업셔지는동시에는 비록고리터금으로 빈민의고혈을빨라버이는것이남아 소위금전의류통이곤난하겟다는것이문제이나 이것은조금도념려할것이안인것이니 그리지안어하야도원린민간의금융리관이부족함으로부터동계와갓흔교리더금이왕성하게되는것인즉 엇지하얏든지 이제부터는소위금전을류통케할만한그관계관히설립하여야만할것이라 계는업셔든인이업셔든 차차금융리관이증가될것은여러말할필요가업고、또한부득이계가잇셔야만금융이잘된다할것갓흐면 정당치못한동계를 의뢰할것이안이라 지금남터문밧봉래뎡에셔 설립하는광제사(廣濟社)와갓흔고본계(股本稧)를할것갓흐면 혼상(婚喪)과 갓흔인륜디사에 금전을 긴히쓸셰안이라 취리방법도 그럿케불정당치는안이할뜻하니 엇지하얏든동계는업셔어고말것이라는것이 방금일반사회의비평거리가되얏더라(쑷)

天氣豫報

日出 上午七時二十分
日入 下午五時十九分
雲雪 自昨日午後十二時 至今日午後十二時
貌樣
溫度 七日 正午三五、六
華氏 同日六時最低二四、四

◇잔소리◇

▲어제는별안간에 디나련주에다가붉은조희를도라단이며부침으로오고가는사람들은련주마다돌너서셔우슴일인지압지를못하야공걱하든관에 ▲한편에셔는 경관들이 눈이둥그러조며 일변붓친것을떼며 일변붓친든사람을헐네벌덕거리고 차가서 붓들고취됴를하얏다나 ▲또금기야알고본즉 경성부청에서련주를묘사하기위하야그와갓치한것이 판명되얏다지 ▲모경찰서장은어한기를 경성부에셔 잘못한일이라고 하드라나 서더가이상스러운이셔에 하필붉은조희를 붓치게하얏다고 ▲이런말을경성부에셔들으면 과연자보을할는지 만일반박하기를 시더가이상스러운이셔에 식관이모자는 무숭빗으로하얏느냐고하면 무엇시라고 더답을할터인고 ▲다가든쳐디에피장파장이라고하고말터인가 그러나 잔소리군은경성부의잘못한것을말할것이잇단말이야 이왕이면 붉은조희나마큼직하게 한누어자평방으로 만들어셔붓지엇스면 그런말늘안들엇슬것어란말이지 ▲경관이아모리적화는무셔워한더도 전부가 적화되면엇지못하는중어가잇단말어야요 사어진고기롤가보면상념마다셔너자간격우어자간격으로붉은과빌이혝ㄱ하지만은 그압흐로겨관이쓴어지만코왓다갓다하며서도 말한마티안이하지안느냐말어야 ▲근리의경관의신경은 예민한것도갓고 실둔한것도 가타보이다말이지엇더셔는 조고마한 조회를보고도눈어둥그러지고 잇던셔는 그와갓치만흔것을보고도못본체하는지

漢方醫藥機關

朝鮮全道醫生及藥種商의處理方法을東西醫學研究會長金性璂氏에게擔任하얏다더라

一金壹百圓也 感謝廣告

本人이京城府各社喪事部入社한지僅々二個月에定望한社員이死亡에對하야葬式費金과旣納한保金을今月一日에領受하온바該社의確實한信用과叮嚀迅速함에感謝하와茲以謹告함
大正十一年十二月七日
京城府敦義洞一一七番地　受取人　安柄國

移轉廣告

本人이今般左記住所로事務所를移轉하얏삽기玆에謹告함
京城府茶屋町三十一番地
辯護士 特許辯護士　金秉愚

朝鮮에在한外國人의經濟力檢察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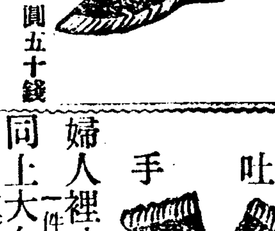
十二月一日發行
安昌男氏의冒險飛行記事
開闢
年終禮讚의創作七篇
特價六十錢郵稅二錢
發行所　京城府慶雲洞八八 振替京城八〇一六　開闢社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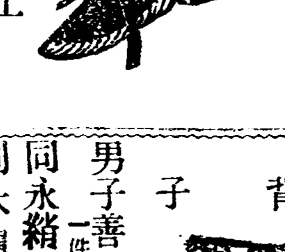
金銀界覇王

金銀美術細工品眞佩物商 各種都散賣
京城府鐘路二丁目五番地
元信商會　主務 權性淵　電話(本局)一八三八番
本商會에서四海僉位의愛顧하심을多蒙하와業務가日々隆昌하온中今番營業을一層擴張하기爲하와本商會를改築하옵고物品을多數精緻製造하얏사오니倍前賀助하심을伏望
(但地方에는代金引換으로迅速酬應함)

冬節 各種毛物大賣出

本商店에서는數十年이라는長久한經驗으로今年에도例을싸라店員을産地로特派하야直輸入하옵니다

男風

普通大風 一件 一圓五十錢
特別大風 一件 四圓
同 一件 三圓五十錢
同 一件 二圓五十錢
同 一件 二圓
普通女風俱件 一件三圓三十錢
特別女風俱件 一件五圓三十錢
次品俱件 一件四圓三十錢

遮風

男風遮三山巾上 一件 自八圓至四圓五十錢
婦人特別風遮具件 一件 自九圓至六圓五十錢

吐手

婦人裡吐手上品 一件 自四圓至二圓五十錢
同上大女帽紫絹縇吐手 一件 自三圓至一圓
男子上善羔羊皮吐手 一件 自二圓至一圓
普通毛本段吐手 一件 自六圓至四圓
同不屬吐手 一件 二圓五十錢
特別兒風具件 一件 自五十錢至一圓八十錢
同永綃兒風具件 一件 七十錢

背子

男子善羔羊皮背子 一件 自二十圓至十一圓
同永綃衣背子 一件 八圓五十錢
同木屬背子 一件 自六圓至四圓
男子善羔莫古子 一件 自二十五圓至二十五圓
同木屬 一件 自十五圓至十一圓

物品을請求하실時에는見樣과色을昭詳히說示하시고十件以上을請求하시면郵稅는本店이負擔하옵니다
京城府公平洞七十番地(舊典洞)
各種毛物製造 各種神褥製造 商 李萬協

荊山玉

第七十回 碧霞 著

스사로악마와결혼코자 장차엇지나되라는지?(一)

이러케 쳐량하게울고 잇든영자는 다시스사로 몸을벌々떨며 방문에다가 룩터이여둔 고리를번적드럿다 그러나지금에 이처럼 울고만잇슬셰가아닌줄로 안까닭이다

그리하야 영자는마지막으로그 영악한몸에 잇는내지지의모든힘을 두편손에 잔뜩모아가지고세여져라 부서져라하고 쇠와갓치 단々한방문사리를거리움 정신업시한참동안을 트럿다 그러치만은 여전히조곰도 꼬미작하는것갓지아니하얏다

그리하야 영자는더욱더욱밋칠듯이날뛰여며 방문에다가 셔며지고 부셔짐을 조금도도라다보지아니하고 몸을탕탕부듸치엿다 아!하나님이 이영자의의씀을 불상히여기심인지?어셔바지바싹도아니하든방문이 스르르소리도 업시열니엿다

지금에 방문이스르르열님을싸라셔 그방문에다가 몸이셰여져라하고 부듸치는 영자는 방안으로 드러가며 넘어지려하얏다

이셔에 영자아바지는 늘근몸이지만은 아직도강긔가왼만한사람에게 지지아니하는힘세인두팔이 넘어지리하는영자의몸을 싸쇠이게 붓잡잇다

「아구ㅣ아바님!」

한번부르며 영자는 정신업시 자긔아바지의가삼에다가 얼골을 폭ㅣ파뭇고 흑흑늣기며울뿐이다

영자는 이리케한참동안을 울고잇다가겨우정신을차리며 얼골을드려 자긔아바지의얼골을본즉 자긔아바지의얼골에는 눈물뿐이엿고 그압책상에는유셔(遺書)인듯한종희가 노히여잇다

「영자야!々々!내가지금에 죽으라다가 못죽엇다 아ㅣ죽는것조차 어렵구나 이런변々치못한위인이 이다잇단말이냐 지금에 내가죽으라할지음에네의소리를드르니 나의싸쇠게먹은결심은 봄눈녹듯이스르르골니고 참아죽지못하얏다 참으로이일을 엇지하면 좃타말인가살자하니 진정으로살수업고 죽자하니 져외로운영자를 혼자두고죽을수도 업스니이일을 장차 엇지하잔말가! 아ㅣ영자야! 네가그처럼아바지를원망유할것갓흐면 나는참아당하지못할일이 잇드리도죽지아니하겟다 영자야!」

라고 영자아바지는 영자가정신을차리는것을보고 한숨을지며 말하얏다

「그런데 아바님! 왜ㅣ그런말삼을하십닛가 잇지한싸닭으로 도라가신다하십닛가? 대관절 그싸닭을 말슴하야주셰오 아바님! 왜ㅣ아니가르켜주셰오」

「아니다아니다 붓그럽다 그일을 들어셔무엇을하늬 도리혀 이아비잘못맛난탓만 할센이다 나는 그일을말하기커녕 너를 볼낫이업다 아ㅣ그놈!그놈의 무셔움고간흉한계교에셔러지엿다 그런못된악마가 세푸러노흔철조망에 걸니는위인도못낫다 아ㅣ붓그럽다붓그럽다 내가내가붓그럽다」

하는영자아바지는안진자리에셔 조비심을하며두손은벌벌떨니엇다

「아바님! 지금말삼하시는 그놈인누구입닛가?아마윤리호이란놈의말삼이십닛가그런데그윤태효이란놈이 엇더케하얏단말삼입닛가! 아바님! 속이답답히셔못견듸겟습니다어셔속이시원하게말삼헴ㅣ하야주옵소」

「옹ㅣ그런 지금에안져셍각하면 모도다번연히알수잇는간악한계교에 싸지엿다 그러치만황태성 옹ㅣ그놈ㅅ지 그놈아지그리한단말인가!나들팔어먹엇단말인가 아ㅣ내가그셩각을하면 가삼이싹기지는듯이앙흐다!」

하는영자아바지는 지금황티셩이가 염혀잇는것갓치 눈을흘기면셔 셜니는목소리로 말하얏다

「네ㅣ아바님! 그황태성이가엇더케하얏단말삼입닛가또아바님을팔아먹엇다는말삼은무슨말삼입닛가쪽々이말삼하야주셰오」

하며 영자도잠시동안은 멀건이정신이쌔지엿다

「그리ㅣ돈! 우셥다! 돈이그러케무셥단말이냐! 참말로돈의힘이 무셥다! 돈만가지면 그세상사람을 다살수가잇다 그리하셔착한사람도 악하게만들수가잇다 져ㅣ져황티셩그놈아지 나는속이여! 옹ㅣ여러히동안나의은혜를입은그놈아지그리하는구나! 참말로 이셰상은밋지못할셰상이다 이것이다돈의힘에부림이다 친부자와갓치 지니는놈이돈의팔니여하로아참동안에원수지간이된다말이냐아! 무셔운세상! 악마의세상!」

하며 두주목을 힘것쥐고사지를 비르르셕릿다

開放欄 投稿歡迎

女子敎育不敎育에 對한關係

海南分局記者 朴采敏(赤)

新文明의曙光은全世界에서빗을發하고新覺醒의曉鍾은全人類의큰삼을세친다 全世界全人類는暗黑의世에셔져ㅣ서빗의曙光을向하야前進코져하며迷冥의夢에셔져ㅣ큰소리의曉鍾을聞하고警起코져한다그리하야발셔新文明制度의建設된것이小數가안인同時에舊文明舊制度의破壞된것도其數가不少하도다그러나今日은아직우리人類의百般制度를革新하는初創時代라是로부터不徹底不圓滿한舊生活의制度를一々히破滅하고徹底圓滿인新生活의規範을個々히建設치아니치못할것이다그러면우리人類의福利를增進케하며安樂을享得케하라하는新文明制度의女子敎育과不敎育에對한層等의關係를말하려하노라우리二千萬衆에現代男女靑年諸君이시여女子에對한男子의苦痛과安樂의差別이며男子에對한女子의苦痛과安樂의差別이懸殊한點을覺得하시는니도 만호리라 自證하노라우리가그點에對하야苦痛하기보다먼져原題인敎育及不敎育에對한處地에在하야懸殊함을自覺自悟自進하여야되리로다余가明星인靑年學生의思潮를살피고에그는何등因緣함인지大槪悲哀煩悶함이多하고또若干有志한者라도逆境의困苦로自身의去就를容易히收拾치못하야空然히暗黑한中에셔彷徨하야絶叫하는事가多하니그네들에게그理由를聞하면自己의慾望을다하지못하야巨細한모든理由로써各自答辯한다或은戀愛라는題를誤解하얏는지는모르거니와新學의敎育을밧지못한村女子는사랑도업고頑々써人하닛가우리의新靑年과는到底히結婚할수가업는데父母의毆勳에有하다는不平또는父母의强勸으로成婚

이런者는살々한家庭에외로운枯木生活의苦痛은참아못할事情이니離婚을하겟다는말이엇다此에對하야나는미우反對도엇섯다나는도로혀『루소』의主義를말하야自然의敎育善美임을證하는同時에村女子를稱讚하얏다直現愛와秘隱愛의別은엇슨지모르거니와그女子의가삼속에도써人한사랑이잇슬셴이라純潔美的인天然性에는아모分別과離비고邪스러운點瑕는업스리라그러면그는다만原時의心性이리라다시말하면그의心性은밀가루나쌀가루에물을타셔풍친반죽과갓흔心性이다그풍친반죽을가지고松餠이나싸아이나蔓頭나만드는사람의手藝로心性에合하도록만들수잇다그러면그心性을우리의만드는手段에셔사랑도엇고참스러운天性의속에셔完全한家庭의幸福을엇을것이다過去의不平組織에셔脫退하는光明의平和될것이어다所謂新敎育을被하야무엇이라고付名하야만드러노흔그것보다도ㅣ그것은原時의心性이안이오假裝이만흐며男便의心理로만드러지지도안으리라그가맛치他人의制作인松餠을나의心理에는蔓頭가合하다하야그松餠을蔓頭로變作코져하면心理되로될가안될가를말하지안이도自辨하리라는反對로親故와言諍도잇섯고內外間喧嘩者의게批許도잇섯습니다그리하야나는自然의正義를부르지즈며實驗的物에되리라하야敎育은그더로村女子의게結婚이잇섯습니다그女子는原時로된村女子中에좀나흔女子입니다그리나그外夫婦의約을成한後로所謂家庭生活이라는것을組織하얏습니다(未完)

各地報道

仁川名刺交換所

仁川府의名刺交換會는恒例에依하야一月一日正午에行할터인바目下工事中에在한公會堂은同名刺交換前에는竣工할터인데會費는例年과如히一人에對하야一圓이라는바希望者는來二十日까지仁川商業會議所로申込하기를바란다더라(仁川)

本報讀者慰安會 後報

旣報와如히本報讀者慰安會素人劇團一行은預定과如히本月二日下午七時에舒川郡西南面玉山里에到着하야當日八時부터當地玉山學校廣場에셔開催된바當地玉山學校와勇進俱樂部後援下에셔定刻이됨의該校敎師高光圭氏의開會辭가잇슨後該郡廳書記沈相允氏의式辭가잇고開幕이됨의本劇團의藝術은觀客으로하야금多大한感想을주는同時에本支局總務李陽馥氏의『時代와緊切한敎育과新聞』이라는演題로써說明한바當地有志諸氏는本報를사랑하는마음으로如左한同情金이잇섯는바本支局은營利를目的한것이아이라地方發展을爲함으로當日全部同情金은當地玉山學校와勇進俱樂部에寄付하야將來더욱有望키를深祝하고主客이歡樂으로써閉會하얏는데捐助金額及氏名은如左하더라

羅泰河三十五圓、秋敎永三十圓、秋弼燁、羅靜河各二十圓、元永準十五圓、趙興夏、李鳳相、趙能夏各十圓 金斗喜、秋禾燁 尹畯儀、尹柱榮、羅東煥各五圓 羅相殷四圓、閔弘植、羅守河 崔洛春、全載誠各三圓、羅喆河 具哲鉉、權明植各二圓、南鳳佑 全載喜、具興鉉、沈相允、尹尤熙、林鳳鎬、秋秉冀、李昌宇 郭伯順 朴永鎭、李昌鎬、崔亨鎬、朴應來、具在一、金仁奉 羅達文、林永圭、羅在爀、梁敎稷、申珏永、羅永河、羅吉河 尹柱寫、全載信各一圓(群山)

教育會支部設立計畫

盈德郡에셔는慶尙北道敎育會支部를設立하고本月中旬頃에支部發會式을擧行하기爲하야其事業에第一着手할豫定으로活動寫眞機를購入하야郡內各面에文化宣傳、하야會敎育을發展施行코저江本普通學校長有村小學校長、福木郡屬의三氏가專務斡旋中이라더라(浦項)

物價調節計畫

慶北盈德郡에셔는警察署大久保署長、洪郡守는邑內의旅人宿及飮食店各營業者四十餘名을去月二十八日에警察署內로會集케하고他地方의例에依하야物價料金引下의相談會를開催한바滿場一致로二割引下의決定을하얏다더라(浦項)

養實男女學生同情金

二十五年間의長久한史를가진義州男女兼設의養實學院新禱會席上에셔副院長金正連氏가我國의極東이고東海孤嶋인欝陵嶋는古代의于山國인同時에四千載의無限한光輝를가진周圍百二十餘里廣五十餘里인絶島로셔萬餘의血族이居生하는곳이라雖然하나敎育機關으로明德義塾一個所라도維持키困難한말과造物의猜忌런가?上帝의警戒런가!大洪水로黃海一帶가慘境를當한中에도더욱우리와同一한目的으로活動하는載寧崇義學校가悲慘한地境에陷하엿스니檀箕의神聖한血族이엇지이런消息을듯고同情치아니하랴하엿더니男女學生들이地理上極西方에잇는우리가地理上極東方에잇는欝陵島明德義塾과慘酷히된崇義學校를爲하야同情함은偶然함이안이라하면셔當席에셔誠意써ㅅ四十圓은崇義學校에보내엿다하니如此絶洋孤嶋의同胞를爲하는同情淚는養實學院男女學生이我靑邱內學生界에嚆矢가되겟다고無不贊道하더라(義州)

期成同盟會組織

慶北盈德郡內第一要衝되는江口港은浦項元山間約一百里(朝鮮里數千餘里)의沿岸中唯一의港口를利用함으로本道東北沿海盈江原道沿海漁業者들의利用關係者도顧지勝多할뿐안이라兼하야陸路는安東盈德間二等道路도近히完成하고隣接郡의英陽、靑松、安東、榮州、奉化等各郡은勿論하고江原道忠淸南道地方의物産을呑吐될商港으로셔充分히使命을持할만한港灣으로셔何等의人爲的施設이無한싸닭으로風波는甚하야港內에셔도貴重한人命財産을屢々히波動損傷케하며싸라셔多期에셔는五十川의流量減退도風波에依하야土砂가港口를閉塞케됨으로漁船도出入하기甚히困難하며港外海中에假泊하는狀態는참으로困難과不安의狀態를지닌江口港의修築은地方産業의開發上極히忌先急務이라兼하야日本의連絡航路를浦項濱田間의開通問題가有한今日에더욱其必要를痛感한以來地方市民의協議結果로郡內各面長도呼應하야今年夏期以來로江口港修築問題로期成同盟會를組織하야發會의運命에至함으로會則을決定하고萬難을排하고一般이所期의目的을貫徹게할次로其實行의委員及役員을選擧하얏다더라(浦項)

尹參與官重傷

慶北道廳參與官尹甲炳氏는這回安東、奉化、等地方에出張하얏다가自働車의顚覆을因하야胸部及肩部와頭部를重傷하야安東慈惠醫院에셔治療中이던바漸次全快에至하얏다더라(大邱)

全江間自動車計畫

全州大邱間鐵道敷設을達成함에際하야江景全州間自働車道路敷設이緊要하다고方今日本人有力家와京城方面資産家側으로부터期成을計畫中이라는데道當局에交涉키爲하야岡中井、坂上、其他諸氏가各方面各種의情況을綜合하야全州有志와協議한後急先進行할豫定이라더라(群山)

水害救濟巡講團

旣報와如히光州基督靑年會主催로黃海道水害로慘境에至한同胞를救濟하기爲하야同情金募集次南鮮地方에巡廻講演을한다는데全南玉果에至하야는玉果靑年會及基督靑年會의後援으로本月二日午後八時에玉果公立普通學校內에셔開催하엿는데玉果靑年會長吳炳岳氏의司會下에演士金剛氏는黃海道水害를當한同胞의現況을報告하얏스며演士黃尙鎬氏는『우리의責任』이란題로熱辯을吐하야滿場의聽衆의게無限한感想을與한中最히感激한바는『猛風寒雪의赤身으로土堀生活』한다는말에一般은同情의눈물을禁치못함을싸라各已血誠으로同情金을捐出하며着하엿던『만도、며米穀이며捐助한金이七十餘圓에達하얏고

學藝品展覽會開催

群山公立普通學校職員及學生一同의主催로本月一日부터三日間學藝品展覽會를開催하얏는데學父兄其他觀客이多數臨場하야盛大의狀況을呈하얏다더라(群山)

面水道의補助金

昨秋부터着手된全州水道는五十萬圓豫算內의二十五萬圓은大正十年度부터十二年度々지政府補助金으로十五萬圓은全北道地方費補助金으로十萬圓은全州面起債로決定하야昨秋부터工事는着手하얏스나各

地稅令改正講演

本月四日午後一時부터群山普通學校에셔吉田財務部長이地稅令改正에關한講演을試한바管內各面長其他重要人士가多數來參하얏섯다더라(群山)

農業技手來南

黃海道農業技手二十五名은農業視察次로去三日頃鎭南浦에到着하야各處農業을視察한後翌日列車로出發하얏다더라(鎭南浦)

金融組合落成式

咸鏡南道咸興郡西湖面에在한港灣內湖津金融組合에셔는去三日午後一時에同組合新築事務所에落成式을擧行하얏다더라(咸興)

土曜討論會盛況

洪原邑禮拜堂內에잇는靑年傳道會의主催로毎月第一土曜、第三土曜에討論會를開催한다함은本報에임의報道한바이니와지는二日午後七時頃부터例에依하야同禮拜堂內에討論會가열니엿는데定刻前에會堂은會館의餘地도업게滿員이되엿다그리자會長金正守氏의百三十七章讚美로써開會하자는共約下에셔會員一同의讚美合唱이잇섯는데堂內는一時天國化하는듯하는靈波가도라다음은朴裕鍾君과金允三君의横笛、羅泰恩君의싸이올린合奏가잇슨뒤에朴裕鍾君의獨唱이잇섯고그다음은當地討論에들어갓다그런問題는입의報道한바와如히『朝鮮의急務가産業이냐敎育이냐』하는것인바産業演士로朴在厚、李在洙外諸君의熱烈한討論이잇섯고敎育演士로韓拿阿美孃、許雲鳳、洪忠義外諸君의敎育이란不可缺이란討論이잇섯고다음朴裕鍾의橫笛、羅泰恩의싸이올린望鄕曲合奏가잇섯다그리고繼續하야여러會員의熱狂的辯論이잇섯고來賓辯論々지잇슨後批評長金信根氏의意氣堂々한谷悉가講壇에낫타낫다그리자놀라운一般聽衆으로부터는拍手소리가물듯흣하엿다그리고또다시한許長은비로소입을열게始作하엿다批評長은가지로소입을 열게始作하엿다그의말合한全部는一ㅣ히紹介치못하겟스나大槪朝鮮에는産業이爲先이라는事實證明이잇섯고또한世界的으로보아도産業을더욱獎勵하여야할것과一般演士中으로

柳申兩氏의美擧

柳南基、申東文兩氏는本來全州에居住人士로工業學校를卒業하고鮮洋式家具工場을全州面大和町一三商會前에設置同業中이던바今番全州勞働夜學會新設의趣旨를贊同後에五圓價値인冊床一部를寄附하얏슴으로一般人士는兩氏가開業初의諸般이未備中에在하얏슴을不顧하고如斯히同情하얏슴은兩氏의敎育熱이深切하다고稱頌하더라(全北)

美人劇團來開

京城京和券番藝妓로組織된朝鮮新派美人劇團一行은去五日부터開城郡開城座에셔興行中인바連日大滿員의盛況을呈한다더라(開城)

消費節約宣傳

鎭南浦府主催로本月四日부터府民사들의게消費節約을宣傳하야平安南道地方課囑託朝本義夫氏가有益한講演을左記日割과如히開催하기로計畫하얏다더라

十二月四日午後三時 三和券番、同五日午前十一時第一普通學校同午後三時第二普通學校、同六日午前十一前三崇學校、同午後三時得信學校(鎭南浦)

府廳의經營事業

當地로부터水東間渡船은從來個人私營이던바今에本府에셔引繼하야本年十二月一日부터同二十一年十一月末々지經營하기로表示된바渡船稅는各船에五錢式値下施行한다더라(群山)

運船稅問題交涉

群山米穀商組合側에셔는去月三十日에役員會와共히荷主會를開催하고汽船運稅及艀賃問題를凝議된바出席者의意見은運稅에對하야仁川과同樣으로할것과艀稅는現行石當二十二錢이던것을十八錢으로改正함

婦人貯蓄組合設立

去一日에成鏡線의一部가開通된西湖津에는金融組合理事代理金智龍氏와同組合評議員金錫九氏의發起로婦人貯蓄組合이設立되얏다는더組合員의數는四十餘名인더貯蓄金額은每月十錢式이며規約金은五十錢式이라더라(咸興)

金融組合成績

盈德金融組合은道內에셔도第一重要한組合으로知하는바本組合에山本理事가着任한以來로業務가發展하야好成績을得한時에固定貸付도着々整理를遂한今期는未曾有의純利益을見함에至하야同組合會現在貸出額은十二萬四千圓으로預金은四萬八千圓을示하얏다더라(浦項)

辭令塔

▲시너가회동(市內嘉會洞)에셔는작년도부터동회를조직하고자치(自治)더사업으로위성상에필요한청결을시힘할생안이라▲학령(學齡)의관계로입학지못하는아동들이도로에서방황함을유감으로성각하고그동니에거주하는유산계급에더하야연빅원몃십원식을모집하야소규모로학교를건축하고▲온년츈거부터남녀학성빅여명을입학케한바일반직원의열성으로그성적(成績)이량호하다하야일반학부형들은반갑게녀이고감사히녀이는이셔를당하하▲한갓고통을밧는것은학교건축비삼빅원의부족이잇슴으로청장할도리가업는고로 일전에동회의평의월회를열고 부족금청장할일을의한결과로 유산계급에 잇는인사들은 이것을듯고 힘터로수합하기로하얏다나 참감사한일이다엇저니엇저니하야도 돈잇는사람이 사업을하는것이야(일학부형)

▲시너하교(河橋)남편 림덩(林

新刊紹介

◎諸種雜誌의紹介를願하시는諸氏는朝鮮日報社編輯局內新刊紹介係로冊子를直時보니시오

△開闢(十二月號) 朝鮮의發展과朝鮮人의發展、團結生活의落第者와及第者、經濟思想及經濟運動의發現如何、新東洋文化의樹立에까지、在朝鮮外國人勢力檢察、九死一生으로大阪에着陸하기々지、隨聞隨見、湖西의一日、當局의言論壓迫과民衆의輿論激昂、其他(定價六十錢發行所京城府慶雲洞八十八番地開闢社)

△배재(創刊號) 此는培材學校學生靑年會에셔發刊하는雜誌인데此號의內容은『創刊을當하야、培材의使命、論壇、研究、藝苑、校記、雜著等(定價三十錢發行所京城府貞洞三四番地培材高等普通學校 培材學生 靑年會)

社告

本支局長許璜記者金容夏兩氏는事情에依하야解任하고左와如히更選하엿사오니諸位照亮爲要

支局長 金文淵
記者 金奭圭

朝鮮日報社

殘月(十七)

雲遊生 作

자연의묘곡(自然의妙曲)을아뢰는 송풍(松風)의김은고곡조를맛쳐구슬푸게우는버레소리를드르면셔미자는길게한숨을지으며지난넷세샤의의謠은력사를말하기시작한다

× × × × ×

한평성을두고그흔적이사라지지안을큰못이가삼에박힘을당하기는내가아홉살되던히오월、바로아버님의성신날인가봅니다 그셔나는아죽철도치들지아니하엿슬단순한머리의소유자이던셔라 무슨성각한이엇셔스며 집작함이잇셔겟습닛가 그져어리광부리기와밥튀성이나하고무엇사달나고졸으고그리고릭고쎄여나가농모로더부러작란하다가밤이되면자고하는것이세상인줄압셔입니다그려 셰상사람이그일성중에공인지팟인지분간치못할

죽철이처들지안잇슬그셔가쳐일깃부고힝복한세상이지차차철이들게되야셰상쓰고단맛을알기시작하는그셔부터는눈물이련달니고한숨이끈일업지안슴닛가그런데나는어린세상에한참이나마깃븐힝복을오러누리지못하고일즉이셰상미운맛을격게되엿습니다그것은니가아홉살되던히부터 우리집안에큰풍파가일기시작한것이외다 수십년동안을밤으로낫으로자리를갓치하고근심걱정을갓치하던 아버지와어머니의두사히에아홉살이나되는자식까지기르면셔성리별(生離別)이라는무셔운운명에져희로한바탕비극을연출하게된것입니다그셔나는아죽철을몰낫스니가아버지와어머니의두사이에는전부터정의가엇더하섯는지자세히는알수업스나본시부터그럿케정의가업섯거나 그럿치는안으섯나보아요

이셔나는「그런데잇지하야 성리별을하섯드란말이오」하고물잇다

글세말숨을드르셔요하며미자는말숫을이여

성리별을하게된것은 그원인이아버지게셔 자근어머니를어드신데잇습니다 니가아홉살이되도록어머니가자식을낫치못하시니싸 자근어머니를엇기는것이라고어드섯는지 혹은자식을보자미로어드섯는지 자세히는모름니다만은 좌우간자근어머니를드려다가신것으로말미암아 어머니게셔는 질투와시긔를리지아니하시게되엿지요 그리하야 종일두고 아버지와싸흠만하시고 어머니가 편안할써가 업섯습니다 그저밤낫 싸흠으로 말미암아 우리집안은 지옥이되엿는데 어머니게셔는 도로혀 안된다고 말을하니 얼마나더 가시고 말을 아니하셧겟습니까 안조자근어머니를 돌보지를안코 아버지는 살님을 고생어린어머니에게 갓다가 두고 자근어머니게로만가셧는데 시고 아버지게셔는 그리고 쪽이 살님을하는 엇던날 잠을자지못하시고 남의바느질도하시고 그럭저럭 가지셔 살어가기를 두 해 동안이나 하섯는데 우리 엽흐로 도록치운셔벽에 손을불며 가져리도록치운세벽에 손을불며 셔절고질과쌀내질을하며셔 근근히두옥숨을보젼케되엿드리습니다

그런고성사리로 엿달동안을사라가는가운데 또다시 남붓그러워말못할일이싱것습니다 그는어머니가실힝(失行)한일이외다」여기싸지말하든미자는 다시한숨을수이며고개를숙이고 그의말을듯는나를바라본다 나는놀나「어머니씨서실힝을하섯다?그러셔요」이러케말하며고개를돌엿다 미자는다시말을이여 그러니가그로록고성사리를하시면셔도 어머니는 어린저를보시고 아죽나희가 쓰리도참착하여 엿지요 그셔져는어머니가얼마나 쐐가쓰리도록 신세가 엇더케 가암푸시던 가혼성각이나 또한집안에셔들은 것이 어머니가 갓혼 이것을모르고 저는 오로는 오러작란이나하고 어머니가 엇던검은구름이 몽쳐 부러작란이나하고졸으고 그저 엇저던 날나리광부리기나하다가 집에 드러오면 어머니가 사다 나오면 시고 가집에 셔부시우물리에 셔는 바로 우리가 잇셔 셔겟습닛가그 셔는 바로우리 가 잇셔 셔겟습니다 옷에리○수(李○秀)라는호라비가잇섯습니다

謹告

今般本支局에셔業務를一層擴張하기爲하야印在信氏를事務員으로採用하고讀者의便宜를圖하기爲하야左記場所에申込所를設置하고日報販賣及廣告取扱을하오니愛讀諸氏는照亮하시옵

申込所의位置
開城南大門內半島洋靴店
同 南大門外林鍾植藥房

朝鮮日報開城支局

位置移轉

本月三日부터本支局을左記와所로移轉하얏사오니諸位는照亮하시압

平壤府下水口里一八三番地
朝鮮日報平南支局

朝鮮日報開城支局

本支局에셔李馨鎭氏를記者로採用하오니愛讀諸氏는照亮

朝鮮日報開城支局

祝朝鮮日報論山支局發展

論山郡論山面 面長 朴正魯
論山旭町 實業家 李惠永
論山旭町 天道敎區
論山旭町 崔達淳
論山旭町 梁載根
論山旭町 李聖業
論山旭町 實業家 朴準喆
論山旭町 實業家 閔德基
論山旭町 洪鍾喆
論山本町 實業家 曹秉巨
論山本町 米穀商 崔元燮
論山本町 朴文圭
論山本町 醫生 權永承
論山榮町 積善家 金聲國
論山榮町 米穀商 李守炳
論山榮町 米穀商 朴雲京
論山榮町 金永伯
論山郡恩津面登里 孫進昌
論山郡恩津面登里 黃浩性
同 海倉里 同 金相喜

民 城東面 面長 方圭錫
同 職員一同
同郡同面定止里 慈善家 尹夔炳
同郡同面定止里 振興會長 盧奉植
同郡同面丹峯里 徐相德
同郡光石面長 尹相晉
同 職員一同
同郡同面新塘里 振興會長 尹希重
同郡光石面旺田里 洪在三
同郡魯城面長 林炳應
同 職員一同
同郡同面校村里 洪祐泰
同郡上月面寒泉里 洪鍾振

論山郡論山面旭町日光館 陳蓮花 金山月 金小春 金春紅 林錦仙 李一枝妍 李錦玫 劉蕉仙 金竹葉
論山郡論山面旭町扶桑館 趙山月 李眞紅 朱芙蓉 宋錦子 鄭春紅 金祿葉 金荷葉 車山紅
論山本町 自轉車舖 金福田

京城府樂園洞二百番地 廣文社 新刊紹介

演說及式辭法

靜雲先生 吳榮根 著

全 定價六十錢 書留郵稅九錢

附 議會通用規則

先生이普成館長과夜學校主幹으로文化宣傳에盡力함은世人이衆知하는바洗硯停筆한지數十年만에蘊蓄한才思와立妙한理想을發布하얏스니我東近世에稀有한傑作이다上編은演說의理論及方法이오中編은公私會席에諸般式辭오下編은東西名家演說의實例를網羅한者오附錄은各種議會의設立節次와處理規則等이니言論自由를尊重히하는今日에有志人士의出世縱橫할唯一武器오無雙寳訣이라

時事講演錄

〔定價 每集六拾錢式〕〔書留郵稅每冊에九錢〕

第一、第二、第三、第四、第五、

戰爭主義는平和的으로東縛主義는解放的으로世界의紐帶가改革되는一瀉千里의急激한潮流를싸라朝鮮統治上武斷政治가突然히文化的으로換局된今日에十年間을精養하얏든半島各方面에熱々한辯士들이蔚然登壇하야時事를痛論한것이라

男女聯合討論集

附女史講演

全 定價七拾錢 書留郵稅九錢

半萬年深閨에蟄伏하얏든女子界가一朝에解放을主唱하고無數한巾幗丈夫가演壇에出現하야頊々香語로奇男子의懸河雄辯을壓倒하라는妙境을映寫한珍本이라

歐米新人物

全 定價七十錢 書留郵稅九錢

是書는現今歐米列邦에政治大家로數하고過番歐洲戰役에靖亂元勳으로稱하는諸新人物의平生行狀과出世事業을各述한것이니其體는傳紀오其人은美國위리손、英國로이드쪼ー지、法國클레메ㄴ수、伊國쓰리되及베ㄹ사유講和會議席上에서抵掌談笑하든屈指名流라英雄을愛하고事業을企하는讀者諸君이여彼過去한死英雄의功績簿만讀함보다此現在活英雄의事業記를觀함이尤佳하도다購讀하시요此新人物誌를

中華民國維新人物誌

全 定價六十錢 書留郵稅九錢

五千年專制政治를一朝에打破하고世界的民主共和를創建한袁世凱、孫逸仙、黎元洪、黃興等一流人物로始하야時局風雲에龍戰虎鬪하든吳佩孚、張作霖等에至하기々지略九十人을網羅한英雄列傳이니我東와歷史地理上永久히密接關係가有한支那研究에一大寶鑑이라

速成 英語自習

金字入洋裝美本 紙質 堅牢 二百三十餘頁 實價一圓廿五錢 書留郵稅十三錢

四遊子李君이歐米列國에遍歷하야數十年間實地學習한語調와文法을規則的又는實用的으로編輯하고秖雲先生이漢文及朝鮮語로單字와難句의疑義를對照詳述하야初學者라도一覽瞭解케하얏스니我東語學界에模範的稀有한珍書라

上編은發音及綴字法의諸般奧旨를綜合釋明하얏고中編은言詞組織法과實地對話體를詳錄하얏고下編은實用文法各種이니書翰文、日記法、證書式、等을彙集하얏고補遺篇은會話上一般注意와文法記號詳解等을網羅하얏스니自家獨習에甚便하고學生參考에最適한者ㅣ니有志人士는奮起先讀하시오

普通 國語 自習辭典

讀本

全 定價三十五錢 郵稅五錢

本書는普通學校敎科用의國語讀本全帙을網羅하야單語와難句를假名文順序에依하야詳密히解釋하얏스니普通學校生徒諸君의自習上必要한參考書로提供함도不脈히니이어와日語研究家의

西太后傳

全 定價五十錢 書留郵稅九錢

呂后武則天의權威와褒姒妲己의黠慧와西施楊貴妃의妖艷을一身에兼備하야四十年間二度垂簾에神州四億萬生靈을塗炭에陷케하고滿淸三百年基業을邱墟에臨케하니古今國史中稀有한怪女傑이라

投息洞 國成社 電本局九五九番

好職業

專賣特許ゴム蒔繪適近男女自宅職業 個人熟練日收三圓以上特約店月收三千二百圓以上製品永久買受欲知內容送先金一圓則製品各種及敎授書商報並呈道郡面區特約店募集
〔年末此際에世評이有한本會〕
〔蒔繪式年賀狀도注文하시오〕
京城府公平洞八七番地
東京二葉株式 蒔繪總本部 富國商會
振替京城一〇二七〇番
電話本局三一一一番

井階カズ

오시오무삼병이든지 오시오 이러운、환자는、오시오
진찰시간 自午前九時至午後四時
京城旭町三丁目一番地 (百三十銀行前橫入)

優美館

十一月七日부터新寫眞의上映
米國유사社研究室映畵 喜劇 和解 全一卷
米國유사社쓰타ー映畵 實寫 유社週畵報 六의四十號 全一卷
米國유니바세ㄹ會社 活劇 生死之境 全二卷 에데이셔모氏主演
米國유니바세ㄹ會社 人情劇 漂泊의乙女 全五卷 에바노바ㅡ쓰嬢主演
米國유니바세ㄹ會社 連續 白馬의騎手 全十八篇三十六卷 이드에이모드氏 이버퓨레쓰돈嬢共演
四 第七篇 無窮에懸崖 同 第八篇 危難에穴
京城貫鐵洞 電話三三二六番

朝鮮劇場

京城仁寺洞 電話本局三六二〇番
營業時間 自午前九時至午後十二時
近々三層上에食堂開始 昇降機使用도開始
今日부터新劇座의新戲曲
當二十九日부터의公開順序 활동사진부
米國映畵製造社作 南北戰爭美譚 最後의一刻 全五卷
연극부
一、悲劇 波瀾 星作 全三幕
二、喜劇 헛웃 松齊作 全二幕
三、悲劇 淚 星作 全二幕
四、悲劇 누구의罪 在應作 全四幕 全三幕
十二月六日(水曜)新寫眞
米國골도위ㄴ映畵
喜劇 항을벗도 에도가니리우올솔氏傑作 全二卷
人情劇 審判日 全七卷
第三回 連續活劇 魔의眞珠 全六卷 上場
第七編 扉蔭에셔 第八編 束縛을벗고 第九編 惡感의顏面